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1호 2010년 3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해 오는 6월 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비 연 6천 달러에 한국내 취업도 수월

최근 남가주를 방문한 모교 윤희원 교수(대의협력본부장)는 “서울대의 학비가 연간 6천 달러 정도로 미국의 대학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저렴하다. 그런데다 의료분야와 IT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서울대를 졸업한 뒤 한국내에서 좋은 직장을 얻기가 편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시작된 1학기에 한국의 각 대학에 입학이 예정돼 있는 동포 입학생은 총 8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고려대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33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명, 성균관대 8명, 경희대 5명, 포항공대 3명 등의 순이다.

KAIST의 경우는 2007년 14명, 2008년 10명을 선발했으나 2009년에는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 동포 2세들 중에도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으로 분석돼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민2세 적극유치 ‘특별전형’ 늘려

올부터 9월 입학제도 개설했, 연 2회로 학업계획·성적·자기소개·추천서 필요

모교가 그간 연 1회만 실시하던 이민 2세를 위한 외국인 특별 전형은 올해부터 1회 더 늘리기로 해 적극적인 이민 2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3월 시작된 1학기는 물론 9월에 시작하는 2학기에도 시민권자 자녀들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교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이민 2세를 포함한 600여 명의 외국인이 지원해 약 160명이 선발됐으며 그 중 미 시민권자는 10명이었다.

입학관리본부 이승연 연구원은 “미국대학 지원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울대도 9월 입학을 가능하게 해 이민 2세의 서울대 입학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전형으로 선발 6월 합격자 발표

모교는 지난 2008년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상사주제원 자녀, 그리고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이수자 등 해외에서 체류

한 동포 학생들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재외국민 전형을 전격 폐지한 바 있다.

그 뒤 부모 모두 시민권을 보유한 시민권자와 초·중·고 과정을 미국에서 이수한 자 등

‘법인화’ 해외서 관심 대만 성공대 총장 모교방문

모교 법인화 추진이 해외 대학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장무 총장과 대만 성공대학(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마이클 라이(Michael M. C. Lai) 총장은 최근 접견을 갖고 국립대 법인화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접견에서 양 대학 총장은 법인화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변화라는 데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마이클 라이 총장은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대만 성공대학은 대만 국립



대에 이어 2번째로 큰 대학으로, 지난 2004년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다 현재 중단된 상태다.

RNA 바이러스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마이클 라이 총장은

남가주대(USC)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그러다 2003년 대만 성공대 부총장으로 초빙돼 2007년 총장에 취임했다.

대만 성공대는 법인화를 추진중인 ‘서울대 리더십’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을 위한 전통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어 모교는 대학 본부와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간 지속적 논의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학내 대의기관이자 최고심의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대만 성공대는 이장무 총장, 법인화 관계자 등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대 홍보부>

PRSRT STD
NON-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특집 · 기획

이명박 정부와 한일관계 · 3.1운동과 유관순, 미국 식료품 3~5면
쇼팽탄생 200주년, 세계 여성의 날 · 물의 날 · 기상학의 날 6~9면

종 합

인물·권두축시·모교 MBA모집

박지웅 동문(코넬대 화학과 교수)

‘슬론 리서치 펠로’ 선정

코넬대 화학과 교수 박지웅 동문(사진)이 최근 촉망받는 과학도에 시상하는 ‘알프레드 슬론 리서치 펠로’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알프레드 슬론 리서치 펠로는 슬론 재단이 7개 과학 분야별로 매년 총 118명의 펠로를 선정해 1인당 2년간 5만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한인 과학자로 박지웅 동문을 비롯해 카네기 펠론대 제이슨 홍 교수(컴퓨터 공

학), 하버드대 피터 박 교수(분자 생물학) 등이 포함돼 있다.

박 동문은 첨단 나노 소자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촉망받는 젊은 과학자 100인’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2009년 9월호 참조).

박 동문은 서울과학기술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6년부터 명문 코넬 대



학에서 화학과 교수로 재직해 오고 있다.

권두 축시

얼음을 가르는 소리



백순(법대 62)

<미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

하늘에서 나리는 천사의 소리로
판타지의 그림을 그으며
얼음을 가르는 가련한 소리

높은 곳을 가다듬는 두 손을 모아 올린
그대의 간곡한 기도소리인가

몸통을 휘둘러
침묵의 호수를 휘어잡으려는
신들린 몸부림의 소리

만만년을 차곡차곡 간직해 온
한국 여인의 호트러지는 한소리인가

이마에 솟아나는 투명의 땀방울
크리스탈을 공간에 뿌리며
깊숙이 감추어진 피 흐르는 소리

언제나 어디에서나 뿌리 내려 한국 혼을 키우는
칠천만 한민족의 박동하는 피소리인가

< * 제21회 동계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영광의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고 나서 >



모교의 MBA과정 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박진수 교수의 입학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최고 MBA에 오세요”

경영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교가 경영전문대학원(GSB, SNU) 미주 지역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경영학 석사(MBA) 설명회를 위해 LA를 찾은 박진

수 주임교수는 최근 JJ 그랜드 호텔에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 서울대 경영전문 대학원의 장점을 소개했다.

박진수 주임교수는 “서울대 MBA는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 최고 MBA로 장차 한국과 연결된 사업구상이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해외 우수 인재들에게 확실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인맥, 커리큘럼, 브랜드 이미지’ 등을 서울대 MBA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미주 지역 설명회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 미국 MBA와 서울대 MBA의 차이점을 물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이름 있는 학교의 MBA가 아닌 이상, 서울대 MBA를 취득하는 것이 장차 한국 진출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오는 8월 개강하는 글로벌 MBA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4월30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mba@snu.ac.kr, http://gsb.snu.ac.kr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 IRS 면세승인

기존 모금액도 소급혜택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이 미국세청(IRS)로부터 면세 혜택 승인을 받아 앞으로 미국에서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

sity Foundation, Inc. 이사장 오인석)이 IRS로부터 지난 2월 면세 법인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발전기금(이사장 이장무, 이하 발전기금)은 2008년 5월 뉴욕에 미주재단을 설립한 이래 1년 9개월 만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미주재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금된 기부금에도 세금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발전기금은 실제 기부가 발생했을

때, 미주동창회 회계고문을 맡고 있는 회계사를 통해 회계 및 기부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검토하는 등 원활한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미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면 누구나 발전기금 미주재단을 통해 기부하고 IRS의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해외 지역에서는 해외 은행 발행 개인 수표를 발전기금으로 보내거나 발전기금 계좌로의 해외 송금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 :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남재홍(NY) 백순(O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

(LA) 임승재(SF) 장석정(CH) 정홍택

(PA) 한창섭(NY)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정희(의) 이승자(사)

정호(공) 홍혜혜(사)

이번 호의 차례

- 이명박 정부와 한일 관계
- 3.1운동과 유관순
- 미국은 과연 쇠퇴하고 있는가
- 쇼팡 탄생 200주년
- 세계 여성의 날

- 세계 물의 날
- 세계 기상의 날
- 타이거 우즈 스캔들
-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 1885년 어제와 2010년 오늘
- 인순이씨의 뉴욕공연
- 10년만의 해후

- 세계 명화 지삼감상
- 16-18. 지부 뉴스 & 동문 동정
19. 동문 광장, 칼럼·시·감동수기
- 20-22. 동창회비·후원금 납부현황
23. 동문 업소특
30. 동창회 조직과 명단
31. 광고

3.1절 특집

이명박 정부와 한·일관계



고병철(법대 55~59)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명예교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은 한국에서 10년만에 진보(또는 좌파)로부터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는 이정표적 사건이었으므로 한국의 대내외 정책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였다.

그 후 2년동안 일어난 대외정책 변화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대북정책의 강경화와 대일정책의 실용주의화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이곳에서 후자를 살펴 보려고 한다.

우선 일본이 한국에게 왜 중요한 나라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라면, 한국과 함께 미국과 동맹관계인 일본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는 '준동맹국'(quasi-allies)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유대를 들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게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교역상대인데 한국의 수출품들이 일본제 부품과 소재 및 제조기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한국은 대일 무역에서 만성적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에는 과거 최대 3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잠정적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한국이 일본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는 410억달러의 흑자를 전 세계와 무역에서 기록했지만 대일 무역에서는 27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적교류를 간과할 수 없다. 한일 양국간 상호방문자는 도합 500만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2년동안 일본 화폐 가치가 오르면서 한국인의 일본방문이 감소했지만 일본인 한국 방문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 규모는 유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일 정책

이명박은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나 4년을 그곳에서 산 경험이 있는 최초의 일본출생 한국대통령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일본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유도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의 정책은 실용주의적 사고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하는

역사인식·교과서·독도·무역적자 등 난제

이명박 정책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나 성과는 두고 봐야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명박은 취임식에 참석한 3인의 국가/정부 수반중 가장 중량급인 일본의 후쿠다(福田)총리와 가진 첫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하는 '한일 신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했다.

후쿠다 총리가 한일 간에 과거의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가 겹쳐져 역사를 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헤아려야 하고, 장래의 한일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을 구체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총리 간에 합의해 실천하다 중단된 '셔틀외교'(shuttle diplomacy)를 부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명박은 그해 4월 동경에서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후 일본의 총리대신이 두번 바뀌는 사이 셔틀외교는 지속되고 있다.

두번째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해갈 것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working holidays 참가자 수를 대폭증가-2012년에는 1만명으로-, 1천 500명 규모의 대학생 대학원생의 유학을 양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전문가가 공동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실시 등에 합의했다.

그 밖에도 한일의 대표적 기업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일 Business Summit Roundtable'의 설치와 그것을 통해 한일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독도문제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은 제2차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후 3개월만에 큰 도전을 받았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타케시마(竹島)문제를 명기할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측은 이 방침을 정상회담 때 한국측에 통보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현이 한국에 자극이 안되도록 조정해 "우리 나라와 한국 사이에 타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상위(相

違)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됐다.

이 발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보류한 데 대해 일본 보수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유도했는데 한국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일시 소환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일본의 독도정책을 '일본이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아직도 일제의 죄를 씻지 못한 전범국'이라는 강도 높은 규탄은 나오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한 것처럼 실무급 접촉과 교류는 계속하면서 정상회담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필자는 국제법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해본 경험에 비춰 독도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비교적 신중하게(low key로) 다루는 것이 현명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제법상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받는 것인데 영토의 소유권을 가름하는 기준/원칙은 간단 명료하다. 어느 쪽이 '지속적이며 평화적으로 주권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authority)'를 했는가다.

독도는 한국이 1953년부터 사실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권행사'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평화적 주권행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국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정서'에서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이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사실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상 효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일본의 주장 또는 행동에 매번 한국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한국이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광고를 미국신문에 내고 뉴욕 Times Square에 전자 게시판으로 광고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효율성을 문제시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이 있는 국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소송을 하려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법적 해결을 시도할 수는 없다.

일본은 여러번 국제사법재판



뉴욕 맨허튼의 독도 광고

소에 가자고 한국에 제의한 바 있다. 만일 한국이 동의하면 '지속적이고 평화적 주권행사'를 과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있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인정받았다는 주장 또는 증거는 효력이 희박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5명의 판사 중 일본인이 항상 있지만 소송하는 국가에게 임시 판사(ad hoc judge)를 임명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서 한국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도박'은 피하고 사실상(de facto)의 소유권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실용적 접근법이며 '분쟁'을 심화하지 않기 위해서 실효없는 일본의 언동을 무시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본의 정권교체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일본 정부는 두번 바뀌었는데 아소(麻生)정부와 하토야마(鳩山)정부와도 계속해서 우호 협조적관계가 유지됐다. 셔틀외교의 순조로운 실행과 다자회의 참석시 상례적으로 행해지는 양자회담을 합치면 8번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중 2009년 1월 서울에서 진행된 이명박-아소 회담과 같은 해 10월 서울에서 실현된 하토야마-이명박 회담을 간단히 요약

해 보려고 한다.

이-아소 회담에서는 양정상이 '셔틀 정상외교'가 정착됨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한일관계를 테마로 양국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가까운 시일내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개발분야에 협력을 강화해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도 거론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도 많은 납치피해자가 있으며 북한과 해결할 과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양 정상은 2008년 4월 동경에서 행해진 이명박-후쿠다 회담에서 합의한 젊은 세대 간 교류강화를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CEO Forum과 '한일 축제 한마당'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열기로 합의했다.

2009년 9월의 하토야마 총리 한국방문은 그가 총리 취임후 처음 다자회의 참석이 아닌 외국방문이었으므로 한일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보여준다고 자신이 설명하고 있다.

< 14페이지에 계속 >

3.1절 특집

3.1운동과 유관순



조봉완(법대 53입)
Bonnie B.C. Oh, Ph.D.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Ret.)
Georgetown University

필자는 매년 3월이 가까워 오면 두가지 생각을 한다.

첫째는 3.1절이다. 한국 태생으로써 그 피투성이의 과감한 항일 독립운동을 잊을수 없다.

해방직후 초등학교생일 때, 아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연상하고 그뒤 역사가가 된 후, 이 제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다.

둘째는 3월이 미국에서 지정한 '여성의 달'이라는 것이다. 재미 생활 반세기 이상의 대학계 전문인으로, 또 한 때 여성학 과장을 지낸 사람으로 의미가 있다. 이 두가지를 합해 3.1절을 제고하고, 유관순의 공헌도를 살펴 볼까 한다.

유관순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읽었고, 한참 감수성이 농후한 여고 시절, 모교 이화 여고에서 대선배인 순국 애국자 유관순에 대한 연극도 많이 연출해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눈물 흘렸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3.1절에 관한 역사적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실개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강점 식민정치 지배하에서 거의 10년을 신음하던 한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대한제국의 끝에서 두번째인 고종황제가 68세의 성령으로 1월 21일 승하해 원통해 하고 있던중, 황제께서 독살 당하셨다는 소문이 나돌아, 울분이 터져 고종황제 인산일인 3월 3일 대거 쌓였던 울분을 터트리고 독립을 선언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고종황제는 1907년 즉위 44년 만에 일본에 의해 폐위 당하고 그의 외아들 순종이 뒤를 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애처로워했었다. 그러나 순종은 허수아비였을 뿐, 1905년 을사 조약 후, 조선반도의 정치 실권은 일본 제독인 이토 히로부미가 장악하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총독을 만주 하르빈 기차 정거장에서 1909년 암살한 다음 해인 1910년 일본은 이조 왕국을 그의 식민지로 흡수해버렸다.

전세계 약소국에 자주독립정신 심어줘

한민족 불굴의 혼 과시하고 남녀평등 운동 계기

이토 히로부미 후계자로 임명된 조선총독은 헌적 군인으로, 무단 통치를 시행해 한민족의 자부심과 인내심을 극단적으로 시험해 3.1 운동을 폭발시켰던 것이다.

3.1운동은 민족 종교인, 천도교 수령 손병희에 의해 주도됐으며, 천도교인·기독교인·불교도 33인이 민족대표로 참여하고 독립 선언문에 서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교인, 즉 과거 지배층의 불참이라는 것이다.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이씨조선의 집권자며 유산층이었던 유교인들이 망국을 원통해하고 울분해 의거에 참석했을 것이 당연하나, 이들은 자신·가문·가문의 재산보전을 위해 일제와 일찍 타협했던 것이다.

고종황제 승하만이 3.1 운동 발기의 원인이 아니었다. 해외에서는 4년이나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베르사이 평화 조약이 1월 18일 맺어졌다.

이 전쟁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선언하기를, "민주주의를 보전하고, 약소국과 식민지국에게 민족자결로 복귀하기 위한 전쟁"이라 했다.

전쟁이 끝나자, 세계에 난재해 있던 약소국과 식민지 국민들이 불기했는데 한국인의 3.1 운동이 최초 거사 중 하나로 그후 일어난 다른 식민지 국가의 주권 회복 운동을 자극시켰다. 3.1운동은 계획이 들렸다는 소문 때문에 날자를 당겨, 2월 1일 전인 3월 1일 거사하기로 했던 것이다.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의 백성들이 미리 서울로 모여들어 이틀이나 앞섰으나, 의거 참가 수가 의외로 높았다.

민족 대표 33인의 계획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공공장소에서 선포함으로써 조국의 독립을 세계에 만포하려 했다. '독립선언서'는 역사학자 최남선이 기초했으나, 그 1인만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는 1개월 전 중국 길림성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의 선언과, 일본 동경의 조선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을 인용했고, 만해 한용운(불교 스님)의 건의와, 소설가 춘원 이광수의 교정으로 마무리지었다.

그 문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평화적 시위를 주장한 선언문

이었기 때문에 후세들의 "비겁하다"는 비난도 받았다.

독립선언 대표들은 2월 28일 손병희의 집에 모여 유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약속장소인 탑골 공원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해 인사동 소재의 태화관(泰和館)으로 바꾸었다. 이 결정도 후세의 불만을 일으킨 일 중 하나다.

한편, 탑골공원에서는 1천여 명의 학생과 그의 몇배 수로 합세한 백성들이 시위 장본인이 됐다. 폭발하는 만세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그들이 던진 태극기·선언서·모자들은 이른 봄 바람에 흩날려 날아갔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통계는 조작해 최소수를 공개했으나, 참가자 수를 절반인 100여만 명이라 하고 피해자 수도 극소수로 줄여 사망자는 10분의 1도 안되는 550명이라 했다. 사망자 7천500여명 중 한 명은 18세의 소녀 유관순이었다.

한국의 잔다크 유관순

(1902.12.16~1920.9.28)

유관순은 3.1 운동과 동의어인이다. 3.1 운동이라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이름이 손병희나 최남선·한용운이 아니라 유관순이다. 그는 '한국의 잔다크

(Jeanne d'Arc)'로 불리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 식민 독재하의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8세 때 순국했다.

그에게는 사후 한국독립 수십년 후 여러 번에 걸쳐 수많은 명예와 상이 수여됐다. 최고의 명예로는, 그의 복원된 생가가 대한민국 사적으로 지정된 일과, 고 1 여학생에게 수여하는 유관순 햇불상이다.

유관순은 충청남도 천안 출생으로 미국 선교사의 장학금을 받고 이화학당 고등과 재학중 3.1 운동을 맞았다. 학생들의 안

전을 위해 교장이 3.1운동 참여를 만류하고 교문을 잠겼으나, 담을 넘어가 3.1운동에 참여했다. 10일후 전국적인 임시휴교령에 교향으로 하향한 뒤 아우내(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지휘했다. 일제 헌병대는 유관순의 부모를 학살하고 유관순을 체포해 검거국으로 이송했다.

유관순은 공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언도됐으나 정성심법원에 항소해 징역 3년형이 언도됐다. 그러나 서대문 감옥에서 모진 고문에 1920년 9월 28일에 옥사했다. 일제는 고문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시신을 내주지 않으려 했으나 이화학당 교사들이 항의시위에 2주일 후 시신을 인수, 2일 후인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됐다.

시신은 이태원 공동 묘지에 안치된 뒤 몇 번 이장되다가 유골 분실로 매봉산 기슭에 초혼묘(招魂墓)를 봉안했다.

3.1 운동의 여파

3.1운동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는 일본 정부가 무력정책을 재고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파견하고 온화 문화정책을 약 10년간 시도했다는 것이다.

집단과 언론활동이 허가됐고 기초, 초등기술 교육이 확대됐다. 그러나 사실은 허위로 내부에 더욱 사악한 정책이 숨어 있었다. 어떤 점에서 무단 정책보다 장기적으로 더 악성 결과를 초래했다. 한인 지식인들을 온건파/혁명파, 좌익/우익으로 분열하고 노골적인 혁명파 탄압, 친일파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 이광수 등이 친일운동의 앞자비가 됐다.

3.1 운동의 장기적 여파는 광대하며 영구적인 역사적 의미가 있다. 몇가지 적어 본다.

3.1 운동에 자극받아 무방향·무계획·즉흥적 행동의 독립투사들이 구체적으로 조직됐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13일 중국 상해에 수립됐다. 또 이 운동이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중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이 "한국은 불원간 독립될 것"이라고 선언했을지도 의심된다.

3.1 운동으로 전 세계적 독립결의를 나타내 각 국가 국민에게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파했다. 중국의 5.4 운동을 직접 자극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3.1 운동은 한국 해방 후에도 한민족에게 독립 자치국민이 될 수 있다는 정당성과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3.1 운동이라는 유일무이한 항일 투쟁이 있었기에, 한민족의 불굴의 혼이 있었다. 또한 유관순이 있었기에, 한인 여성의 인내심과 애국심에 장래 남녀평등의 길을 닦는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김관섭.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서울 춘추사 2003) 이병도. 한국사대관(서울 보문각 1964) 임종국. 실록 친일파 반민족론 제연구소 역음(서울 돌베개 1991) 진단학의. 한국사 현대편(서울 을유문화사 1972) Langer, William L., Comp. & Ed. An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8. Lee,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Trans. By Edward W. Wagner with Edward J. Schultz.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특별기고

미국 붕괴론의 실제

미국은 과연 쇠퇴하고 있는가?

경제력과 정치력의 상대적 감퇴가 근거
천가지 문제점에도 한 가지 위대한 장점

백 순(법대 58)
미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글로벌 소사이터티 자문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 들어서는 2000년대 초부터였지만, 최근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계와 경제계, 그리고 지식인층 사이에 아직은 심각하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은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2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대경제 침체(Great Depression)가 미국말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미국 쇠퇴 시나리오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른 근거는 9.11사태 이후 국제 테러리스트를 섬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을 일으키고 아직도 수행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제관계 분야에서 북한 핵과 이란 핵문제를 유엔을 통해 제재하는 수준 이상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미국 쇠퇴 논의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 쇠퇴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력과 미국 정치력(외교력)의 상대적인 감퇴라는 2가지 근거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미국 쇠퇴 시나리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2등국가?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여러 경우에 미국이 경제 및 기타 영향력이 감퇴하여 “2등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피력한 바 있고,

조 비덴 부통령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쇠퇴를 점치고 있는 것이 과장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스꽝스럽다고 논하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선거자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이반 베이 상원의원은 금년 재선출마를 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면서 미국 정치제도, 특히 미국 의회제도의 붕괴를 천명한 바 있다.

정치인들의 미국 쇠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제창도 염려의 대상이 되지만, 얼마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일반 시민들의 견해는 미국 쇠퇴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지난 2월 4~8일 1천4백명을 대상으로 Washington Post-ABC News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21세기에 미국이 세계 정사와 세계 경제에 대한 역할이 20세기에 비해 동일할 것인가, 줄 것인가, 적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적을 것’이라는 대답이 ‘줄 것’이라는 대답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정사와 세계 경제에 대하여 미국의 역할이 ‘줄 것’이라는 대답이 32%와 26%인 반면, ‘적을 것’이라는 대답이 46%와 53%로 나타나, 미국 역할 감퇴론이 심상치 않은 주장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 미국 쇠퇴 시나리오나 미국 역할 감퇴론을 제창, 논의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주마간산격이지만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논란의 허와 실을 가늠하고자 한다.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흥하고 망하는 세력의 흥망은 바로 경제력과 정치력의 흥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쇠퇴 시나리오와 감퇴론을 주장하는 논리전개는 대

략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과거 제국과 강대국의 멸망역사를 통해서 미국의 쇠퇴 가능성을 관찰 분석하는 역사적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와 국제관계면에서, 큰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상대적 세력균형을 관찰 분석하는 비교세력적 고찰이다.

역사적 고찰

첫째 역사적 고찰은 과거 거대한 강대국의 멸망사를 살펴볼 때 현 세대의 최강대국인

퍼거슨은 최근 ‘외교학’ 전문지 논문에서 로마와 명나라와 소련이 생각보다 단시일내에 멸망한 사실을 들추면서 “미국도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속히 쇠퇴하게 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로마·명나라·대영제국·소련은 각각 농업과 교역·상업, 식민지와 무역, 국가통제 경제 등의 경제력과 원로원, 황제, 식민지, 공산당의 정치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농업경제의 한계, 상업경제의 혼란, 식민경제의 제한, 통제경제의 비

효율성 등으로 경제력이 감퇴하게 되었고, 서로 죽이는 원로원 정치, 파벌싸움의 환관정치, 구두끈같은 형식적인 식민통치, 비효율적인 공산당 정치 등으로 인해 정치력도 쇠퇴하게 돼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미국도 20세기까지는 경제력으로나 정치력으로나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아직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최근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나 의료개혁안 등 주요 법안의 의회계류 등 정당 정치의 비생산성 등으로 인해 21세기에는 세계정세나 세계정사에 그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역사적 고찰을 통한 미국 쇠퇴론의 주장이다.

비교세력적 고찰

미국 쇠퇴론의 둘째 주장은 지난 20여년 전부터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과 대비하여 미국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감퇴하게 될 것이며 세계정사와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적인 역할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비교세력적 고찰이

다. 위에서 언급한 Washington Post-ABC News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배적인 역할 측면에서 21세기는 미국의 세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중국의 세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의 세기’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세계 정사와 세계 경제면에서 각각 38%와 40%인 반면, ‘중국의 세기’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43%와 41%로 전자의 답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는 비교세력적 고찰은 중국의 세력, 즉 경제력과 정치력이 놀랍도록 급성장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보여준 2차리 수의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국의 경제는 21세기 중반쯤 되면 미국의 경제규모를 앞질러 세계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예측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제조산업과 수출, 자원확보를 위해 세계를 누비는 경제외교, 세계 금융계에 무시 못할 힘을 과시하고 있는 수조달러의 소버린 자금(Sovereign Fund)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제도는 아직도 공산당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뉴욕 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의 정권 독점정치가 장점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일당독재 정치는 그의 취약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의 경우와 같이, 이성적으로 계몽된 지도그룹에 의해 운영되게 되면 놀라운 위대한 장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위에서 살펴 본 역사적 고찰이나 비교세력적 고찰이 제창하는 미국 쇠퇴 시나리오와 미국 역할 감퇴론은 현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의 현 상황을 관찰, 분석할 때 무시 못할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무시 못할 논리를 갖추고 있음을 짚아서는 안될 것이다.

강대국의 세력을 가늠하는 2개 힘인 경제력과 정치력을 미국의 현 위치에서 감안해 볼 때 미국의 쇠퇴론에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허점들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미국경제의 잠재력

경제력의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규모(GDP)는 세계 경제규모의 1/4에 해당하는 1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제규모도 그 절반 밖에 되지 않으며, 중국의 경제는 아직 미국의 1/7수준에 머물고 있다.

< 12페이지에 계속>



영화 '로마제국의 멸망' 포스터. 세계의 화자들 사이에서
는 로마제국처럼 미국도 서서히 붕괴하리라는 설이 있다.

미국도 쇠퇴하고 있다는 고찰이다. 과거의 초강대국이란 로마·명나라·대영제국·소련 등을 의미한다.

에일대 영국역사학 교수인 폴 케네디가 저술한 ‘강대국들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1988)’은 로마와 대영제국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일어섰고 망하게 됐는지를 분석하면서, 현재 미국이 바로 과거 로마와 대영제국이 걸었던 흥망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인 니알

기획

3월 1일 쇼팽 탄생 200주년, 그의 음악에 대해

그의 작품은 꽃속에 묻힌 대포

사후부터 1차대전 때까지 왜곡 폄하돼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고 있는 쇼팽(Fryderyk Chopin 1810~1849)의 공식적인 생일은 1810년 3월1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셈이다.

쇼팽 탄생 200주년을 맞아 쇼팽과 그의 음악에 관한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공수 (하들랜드 동창회 차기회장 구명순 동문 부군)

나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몹시 좋아하는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의 음악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데다 그의 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글을 시작한다.

6세 때 피아노의 기본 교육이 끝나 있었고 7세 때에는 Polonaise G 단조를 출판했으며 8세 때는 공개 연주회에서 기로베츠(Gyrowetz) 협주곡을 연주해서 폴란드의 귀족들은 제2의 모차르트가 탄생했다고 격찬했다. 그렇듯 음악을 사랑하는 일반인들은 쇼팽이 천재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지만 전문 음악인들은 때때로 그를 약간 낮은 위치에서 평가한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리스트도, 멘델스존도, 슈만도 아무리 노력해도 쇼팽처럼 독창적이며 아름답고 시적인 멜로디의 구성과 컷전을 떠나지 않는 Sonority, 페달 사용법과 약박을 인접한 강박(Down beat)에 접근시키는 연주법을 쇼팽처럼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질투와 굴절된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그의 음악은 그의 사후(1849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1914년) 때까지 왜곡되고 폄하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의 음악이 피아노 음악에 편중되고 소품이 대부분이며 대곡들이 거의 없는 특징과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빈약한 Orchestration에 대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인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작곡한 200여곡의 피아노 음악들과 가곡들은 오늘날 재 조명돼 연주자들과 애호가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낭만파의 서정을 형식과 제약의 틀 안에서 그의 독창성을 잘 살려 표현한 작품들이다.

‘피아노의 시인’은 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았다.

그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접근(Loving approaching) 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대하며 표현하고 싶다.

1928년에 출간된 Cecil Gray의 음악사에서는 쇼팽의 심적 발달이나 그의 음악에서는 문학이나 다른 예술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바깥 세상의 어떤 것, 인간 관계, 자연에 대한 감성, 자신의 것을 제외한 다른 예술에 대한 이해 등 그 어느 것도 쇼팽의 작품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쇼팽은 가장 위대했던 동시대 사람들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있었던 듯 하다. 특히 베를리오스·리스트·마이어베어의 음악을 싫어 했으며 페토벤도 칸타빌레 구절들만 좋아했다.

그러나 바로크 시대의 바흐와 클래식 시대의 모차르트는 거

의 숭배할 정도로 좋아했다.

여인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웠으며 시처럼 압축돼 있는 쇼팽의 음악, “음악은 꼭 웅변처럼 쓰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가 말한 것처럼 동 시대의 비르투오소(Virtuoso)적이며 화려하고 힘찬 음악에 혐오를 느끼고 대중적이고 큰 연주회를 피해 주로 엘리트들과 그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작은 살롱 무대에서 연주했던 것이 그를 평가 하는데 오랫동안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그의 음악은 화려함과 음량이 부족하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그의 사생활은 가리워져 있었고 문헌에도 밝혀진 것이 거의 없으므로 억측과 단점들만 한 때 과다하게 노출됐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낭만파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논평 중 하나는 “쇼팽의 작품들은 꽃 속에 묻힌 대포들이다”라고 한 슈만의 말이다.

하지만 그 대답한 혁신의 화약이 쇼팽 자신의 참신한 음악 언어를 지극히 고전적인 절제, 그리고 형식 및 표현의 균형에 대한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우아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대포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간과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일관 대중들로부터 쇼팽에게 큰 인기를 안겨준 즉흥 환상곡이나 e단조 왈츠는 모두 유작으로 출판됐고 그가 자신의 예술적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서 일부러 감추어 둔 작품들이었다.

반면에 f단조 발라드, 바르카를 그리고 다수의 마주르카들은 진정으로 폭발력을 지닌 작품이었으나 이들만큼 인기를 누린 적은 없었다.



↑쇼팽이 사랑한 헤인 1849년 찍은 유일한 사진이다. 쇼팽은 살아 생전 이 사진 외 다른 사진을 남기지 않았다.

→오른쪽은 쇼팽과 사랑을 나눴던 유명 여류 소설가 조르주상드. 그녀는 6살 연상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위대한 작곡가들에게는 지금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쇼팽에 대해서는 너무도 서술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이번에는 표제와 같이 그의 음악에 대한 것만 쓰기로 하였으니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려고 한다.

동 시대의 다른 작곡가들이 피아노로 소설을 쓰고 있을 때 쇼팽은 피아노로 하여금 시를 읊게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무수한 꾸

밈을 사용하여 선율을 장식하고, Tempo Rubato(연주속도 제량권)를 빈번히 구사한 점, 악곡 구성에 있어 기발함, 그리고 놀라운 만큼 치밀한 Figuration(음악의 장식적 전개)은 쇼팽만이 지니는 천재적 음악성이라 하겠다.

생후 2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쇼팽의 음악이 나를 오래 전 잊혀져버린 소중한 기억을 되찾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쇼팽 생가 기념관이다. 쇼팽은 Zelazowa Wola 마을에서 태어났다.



↓1830년대 쇼팽이 스물 네 개의 전주곡(작품번호 28)을 담을 때 사용하던 피아노다



↓파리의 Pere Lachaise에 있는 쇼팽의 묘지. 그는 39세에 폐결핵으로 숨진 뒤 이곳에 묻혔다.



기획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남성과 동등한 기본권과 존엄성취에 여전히 큰 도전 받아

아직 세계도처에서 여성비하 만연



3월 8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이다. 더구나 UN은 올해를 '국제 여성의 해'로 정한 바다.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해마다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해 여성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 등 여성 권익보호의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편집자 주>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은 우리 한국에만 있었을까?

뉴욕에서는 1857년부터 방직 공장 여직공들을 중심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시위운동이 시작돼 1859년 3월 마침내 여성 노동조합이 최초로 결성됐다. 원인은 남성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조건에 성차별적인 저임금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같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자 1908년 2월 28일 뉴욕에서는 대규모 여성근로자 시위가 벌어졌다. 방직공장 여성 직공들을 중심으로 무려 1만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투표권 등을 요구하며 뉴욕 시가지로 행진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10년 국제 사회주의 노동운동 일환으로 창설된 제2회 국제 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독일의 클라라 제트킨(Clara Zetkin·오른쪽 사진)은 '국제 여성의 날'을 창설할 것을 제안해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채택됐다.

매년 같은 날, 각국에서 동시에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여성의 날' 행사를 갖자는 제의에 따라 이듬해인 1911년 3월 19일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치러졌다.

그러나 이 행사가 3월8일로 바뀌는 것은 1917년 3월8일 페트로 그라드(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진 국제 여성의 날 기념 여성 시위운동이 러시아 2월혁명의 계기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여성 시위운동으로 러

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쫓겨나 제정 러시아가 무너졌다.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닌 주변 국가들까지 크게 가세했다. 특히 러시아 주변 중앙아시아 CIS 국가들은 3대 명절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첫째가 구 소련으로 부터 독립한 독립기념일, 둘째, 이슬람력으로 신년인 3월 21일 '나부르즈', 셋째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다.

백악관서 '여성의 날'

지난 3월8일 백악관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수 십년에 걸쳐 여성들의 권익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부당함과 고난의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클린턴 전 행정부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여성들이 오늘 날에도 가정 폭력과, 지참금으로 인한 살인, 강제 낙태는 물론, 비의도적인 출산에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하는 등 끔찍스러

운 확대를 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기본권과 존엄을 성취하는데 여전히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여성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권의 법적인 진전을 거두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차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백악관에 초청됐던 아프리카의 여성 가수이자 작곡가인 모즈다 자말자데 씨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학교에 다니려는 여자 아이들이 얼굴에 산을 뿌려대는 공격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여성권익보호 아직 요원

이처럼 오늘 날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에게 비해 심한 차별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매년 1억 2천만명의 산모 중 절반정도만 정기적으로 산전·산후 관리를 받고 있다.

연간 2억 1천500만명의 여성이 효과적인 피임을 못하고 2천만명의 산모가 불안정한 낙태를 하며, 300만명이 출산 합병증을 치료받지 못해 50만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긴 하지만 900만명의 여성이 평생 합병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는 국가적 복지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 인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과 편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밖에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사례 등은 다음과 같다.

▶**명예살인**=현재도 이슬람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행위다. 강간·성폭행 등으로 순결·정조를 잃은 여성, 이슬람교를 배척하거나 기독교 등 타종교 개종 등 신앙과 가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을 때 여성 가족들을 죽이는 종교적 풍습이다. 이같은 일은 종교적 신념으로 살인자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터키에서도 명예살인이 매년 늘어나 지난 5년간 무려 1천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할례**=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해지는 여성할례는 토속신앙 뿐 아니라 남성의 성적만족을 위해 여성이 8~15세부터 성기 일부를 잘라내는 전통의식이다.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고 마취도 없이 외부 성기를 잘라내는 것으로 혼전 순결에 대한 증명이기도 해 신랑측의 지참금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감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인권기구에 따르면 소말리아·세네갈·이집트·에티오피아·수단 등에서 매년 300만 명이 할례의식을 치르고 있으며 이중 사망률이 40%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제낙태**=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가구당 1인자녀' 정책을 강력히 추진, 1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면 벌금은 물론 징역도 실시하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출산 뒤 불임수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계획생육'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인구조사를 실시해 심각한 유전질환 및 정신병·지적장애·기형 등 장애인 부부의 임신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 낙태수술을 반강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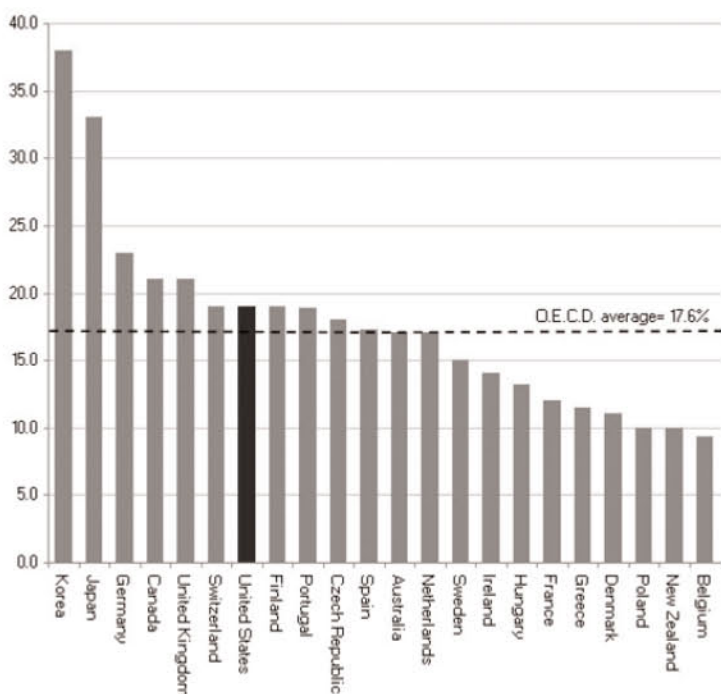
▶**인신매매**=세계 각지에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 인권위원회는 탈북자 1천346명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중국·태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5만여명 중 70%인 3만 5천여명의 탈북여성이 인신매매·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일부지역에서 십대 탈북여성 10명이 약 20만원에 팔려가는 것을 봤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여성 임금 남성보다 평균 17% 낮아

한국, 남녀격차 가장 크고 벨기에 가장 적어

'New York Times'가 '세계 Gender Wage Gap, Around the 여성의 날'을 맞아 'The World'란 제목의 특집을 게

Percentage Gap Between Median Men's and Women's Wages, for All Full-Time Workers (2006 or Latest Year Available)



재했다.

아무리 세계 각국에서 여성 평등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늘 날에도 인권은 물론 특히 임금면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취급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Full Time 직업 현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평균 17.6%가 낮았다는 것이다<도표 참조>.

가장 격차가 심한 곳은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으로 30% 이상을 보였으며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덜한 곳은 벨기에로 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19% 적은 것으로 드러나 미국 역시 아직은 남녀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2025년에 세계 물전쟁?

인구증가에 수자원 못따라가

3월 22일은 UN이 정한 제18회 '세계 물의 날'이다.

지난 1992년부터 이 날을 정해 온 UN은 200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지정하면서 '2002 물 부족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경우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겪게 돼 '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편집자 주>

“돈을 물쓰듯 한다”는 말은 고래로 가장 흔히 전해져 온 말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물은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것으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물의 70퍼센트가 물로 돼 있는 인간은 물이 없으면 닻새도 버터대기 어려워진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참으로 귀중한 자원이다.

인류의 생존과 문명은 물과 함께 발전해왔다. 고대부터 나라의 제왕은 '치수(治水)'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했다. 고대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다.

고대 사회야 그렇다 해도 과연 앞으로는 '물쓰듯 한다'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2025년 세계 주요국들에 의한 남북극 쟁탈전이 시작될 것이다.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물을 비롯한 자원 부족 현상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미래회의'가 밝힌 2025년 미래전망 보고서의 일부다.

세계미래회의는 엘빈 토플러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이 1966년 설립한 비정부기구(NGO)

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트렌드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이 회의는 앞으로 15년 쯤 뒤에는 전 세계가 물 부족으로 물값이 원유가격 만큼 올라 '물 전쟁(Water War)'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은 수증기로 대기권에 올라 갔다가 비로 내리는 순환을 계속하지만 총량은 정해져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상의 물을 13억~1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인 것이다.

그러나 물 가운데 바닷물과 얼음을 제외하면 하천 등 땅 위에 있는 물 중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그래도 현재 지구상의 64억 인구가 마시기에는 아직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아주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등 낭비될 뿐 아니라 오염돼 실제로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매우 제한돼 있다. 게다가 세계 인구는 날로 늘고 있다.

이래서 세계 64억 인구 중 현재 약 10억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또한 26억명 정도는 위생 시설이 거의 없는 물의 환경에서 생활해 하루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에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 세계 생태계의 원천이자 경제적 생산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의 저장고인 남북극 빙하는 1980년대보다 3배나 빠르게 녹아 내리고 있다. 이 빙하는 앞으로 영영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 남북극의 자원 확보를 위해 미국·러시아·캐나다·중

국 등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3차 대전이 남북극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림벌채, 습지 제거 등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비효율적 관개시설, 지하수층 과잉 개발, 강·호수· 시내의 수질오염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는 큰 요인이다.

현재 아마존 강 유역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산림벌채가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 유역의 산림은 20년 전에 비해 25% 가량이나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브라질의 한 연구 결과는 '수년 내 아마존 유역의 기온이 약 8℃가량 상승할 수 있어 세계의 중요한 담수 시스템에 급변이 올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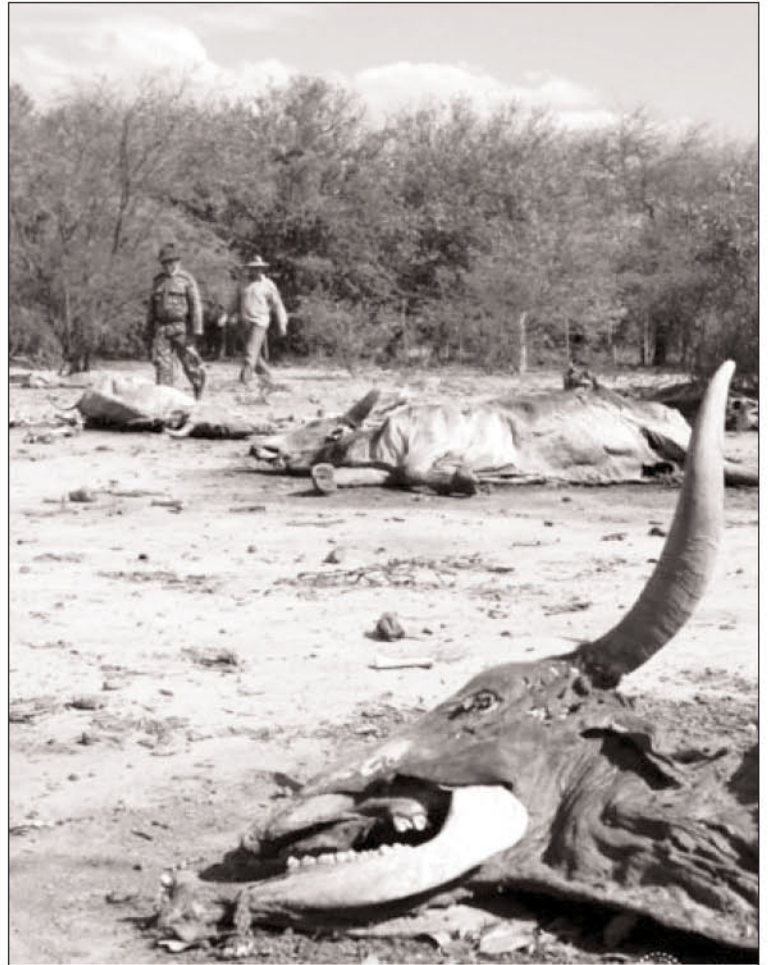
UN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면서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1억~92억으로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2025년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석유를 둘러싸고 석유 전쟁이 빈발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물 전쟁이 석유 전쟁을 대신할 것이라는 경고다.

이미 물을 둘러싼 지역간 국가간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지도 국민일보 제공).

파키스탄의 식품 장관은 지난해 “인도가 물 공급 방해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갠지스 강물 사용권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1960년대부터 계속돼 왔다.

케냐와 수단 등을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들도 극심한 물 부족으로 분쟁이 심한 곳이다.



아프리카에서 계속된 가뭄에 강이 말라붙자 물소들이 죽은 모습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도 물 공급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물 분쟁은 세계 인구의 40%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나일강을 공유하고 있는 이집트를 비롯한 10개국의 수자원 확보 경쟁도 오래 됐다. 상류에 있는 국가들은 물 공급과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류에 있는 국가에서는 당장 마실 물도 줄어들겠지만 농사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쟁이라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규모 태풍이나 지진해일(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 재해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물 전쟁에서 댐 폭파 등 새로운 형식의 테러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남미의 아마존 강은 주변 8개국의 수자원 수급문제와 관련돼 있어 이를 둘러싼 국가간 대립이 이미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와 스페인, 아프리카 각국도 지역간 물 공급의 불균형으로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때로는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까지 입지만, 북부 지역은 건조한 기후로 비가 적어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티베트의 독립을 원하지 않고 끝내는 복속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물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티베트의 히말라야 고원이야말로 세계의 일급 청정수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

로 흘러드는 10여개 강의 원류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기 때문이다. 수자원에 있어 티베트만큼 매력적인 곳이 어디 있을까.

세계적으로 강과 호수가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인 미국은 수자원 부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고질적인 수도행정 부실로 민영화된 물 때문에 수만 가구가 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 LA카운티는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물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물을 허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은 향후 주민들이 200년 간 소비할 물 중 최대 20%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가올 물 전쟁에 대비하게 위한 대책 중 하나다. 무진장이라는 바닷물의 담수화 개발이야말로 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또한 유럽 각국 역시 새로운 수자원 개발과 노후화된 수로 시설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은 부족해서만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의 양이 급변하면 거대한 재난이 오기 때문이다. 적으면 가뭄이 닥치고 과하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어쨌든 물 역시 절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한다.



기획

3월 23일 '세계 기상학의 날'



거대한 해일이 뉴욕을 초토화시킨다는 영화 '투머로우'는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난의 공포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다.

유원준
(천문기상학과 65)

환경파괴와 오염에 의한 자연재난

태양 등 대체에너지 개발로 지구 살려야

지구 온난화의 열변을 토하던 학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 절제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지질학자들은 50년 주기로 강진(强震)이 지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맞다.

지난 1923년 일본 간토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했고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강진은 9.1로써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8.0의 강진이 발생한 기록을 보면 50년 주기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우리는 해령(海嶺)에서 일어나는 일, 해저 지진에 의한 자연재해 등에도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숙명에 살고 있다.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쓰나미) 등은 직접적인 것은 지질학적인 문제지만 한편으론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카고의 서버브 일원에도 규모 3.8 정도의 지진이 지나가 새벽녘 크게 놀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왜 이러한 끔찍스런 재난을 겪어야 하는가.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다. 이 8개의 행성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3번째로 큰 행성이며 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성 중 유일하게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구 전체 표면의 70%나 되는 면적이 바닷물로 덮여 있으며 약 45억년 전 원시 지구를 두껍게 덮고 있던 구름이 급격히 차가워져 구름 속의 수증기가 호우가 되어 무한정 쏟아져 바다를 형성한 것이다.

그후 바다가 안정됨으로써 지구에는 현재와 같은 생명체가 가득한 행성이 될 수 있었다.

바다 안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억년 전이다.

지구의 표면은 10여 장의 판(두께 100 km 정도의 판 모양 암석)으로 형성됐고, 판의 경계 부근 중 육지에서는 큰 산맥이 형성됐으며 해저에는 해령과 해구(海丘)가 형성됐다.

지난 번 아이티(7.0)와 칠레(8.8)에서 일어난 강진들을 비교해보면 1.8도의 차이로 칠레 지진의 강도가 더 높았지만 아이티 지진이 더 큰 위력을 보인 것은 해령의 두께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해령 100km에서 시작된 것인지, 200km에서 시작된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칠레 지진대는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흔들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해령 100km 이내에서 지진이 지구의 끝과 끝을 연결했다면 지구에는 아주 큰 재앙이 닥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처음으로 지구를 쳐다 본 우주인들은

“원더풀...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한다.

파란 옥구슬과 같은 지구는 어느 천체보다 유난히 아름다운 빛을 발해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러한 지구의 주인인 우리는 지구를 살려야만 영원한 우리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원유 생산국들의 원유도 고갈돼 하루 빨리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지구가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태양계 모성으로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환경오염 걱정도 덜하고 기상의 날도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지 모른다.

거대한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나 큰 불덩어리다. 태양 속에서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수소 연료를 태워 헬륨원자로 바뀌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초당 6억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소연료를 태운다.

그러한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오늘날도 지구를 비롯한 8개의 행성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의 중심온도는 1천500만도의 고온으로 50억년 전부터

불타고 있다. 별의 일생은 소년기·청년기·중년기·장년기로 나뉘어 약 2천억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50억년 된 태양은 아직도 젊은 소년기에 있으며 지금까지 고작 5% 정도의 연료를 태웠을 뿐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 이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

우수와 경칩도 지나 미주 지역에도 봄이 왔다.

수많은 천체지변에 망심은 절대 금물이지만 자연재난은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는 거대한 우주의 변화와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자연재난은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발생할 것이다.

지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에 의한 재난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환경파괴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기상변화 등의 자연재난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범세계적인 오염예방 대책 실시가 시급한 일이다.

세계 기상학의 날

지난 1950년 3월23일 '세계 기상기구(WMO)' 회원국 관계자들이 모여 협약을 체결하고 기상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WMO는 이듬해인 1951년 UN 산하 전문기구로 지정됐다.

WMO는 매년 세계 기상학의 날 주제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기상기구 활동을 토대로 이룩한 환경관련 문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MO에 의하면 모든 자연재해의 90%가 날씨·기후·물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WMO는 각국의 기상청과 연계해 환경위기에 유발된 재해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과 대비, 경감 기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매년 2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천식과 심장병·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WMO·WHO 과학자들은 지상에 낮게 깔린 오존·매연·미세입자·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감시해 왔다. 이 오염물질은 주로 공장이나 도시건물, 자동차 등에서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이 오염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이 1990년에 비해 1.4~5.8도 올라가고 해수면은 9~88 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 역시 지구의 큰 변화요인이다.

기고

타이거 우즈 스캔들

Whoever envies another confesses his superiority

박인철(의대 72)

"Whoever envies another confesses his superiority."
Samuel Johnson(1709~1784)
'시기(猜忌)하는 자마다 그 대상 인물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즘은 좀 멀하지만 한 때는 Tiger Woods 불륜에 대한 기사로 신문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다. 그 사건 뒤 그가 비록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말이다.

전 세계를 누비던 Superstar의 위치에서 갑자기 온둔생활로 접어들었던 그의 모습을 보며 "부귀영화나 영웅호걸이다 저 하늘의 뜬 구름 같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결혼한 그가 부적절한 관계를 수많은 여성들과 가졌다는 점에서 그를 사랑하였던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사실은 공감하면서도 사물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 Pattern에 대해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는 주인공의 흥망성쇠를 읽는 일이 아닐까?

유난히 잘 나가던 주인공의 몰락을 보면서 자신이 시기하던 사람의 몰락을 보는 것과 같은 쾌감을 느끼지는 않는가?

혹 자신이 동정하던 불행했던 사람의 성공을 마치 불우했던 자신의 처지가 바뀌는 것 같은 의인화에서 쾌감을 느끼지는 않는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은 없으며 또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친절하지 않은가?

연 전에 미국의 동포 가수 하나가 활동을 하다가 그의 병역 문제가 불거져 나와 활동을 중지한 일이 있으며 또 대통령 후보의 아들들의 병역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이 기억에 새로운데 대한민국의 부모치고 기회만 있다면 자신의 아들을 병역으로부터 면제시켜보려 하지 않았던 부모가 있었겠는가?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들이 하면 불륜인 격으로 이중 잣대로 세상을 보는 인간의 오류가 아닐까 한다.

그럼 인기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한 결 같이 자신의 가치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규정하려는 속성이 있다.

인기가도를 달리는 연예인을 은근히 시기하다가 그가 몰락하는 것을 보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는 듯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운동선수로서 여성편력을 따지자면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였던 Wilt Chamberlain(1936~1999)을 이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생전에 약 2만 명의 여

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것을 계산하자면 하루밤에 평균 1.14명의 다른 여성과 15세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관계가 지속된 수치라고 한다.

그는 특히 백인 여성을 상대로 삼기를 즐겼다고 하는데 아마도 어린 시절 백인여성으로부터 받은 거부반응이나 수모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한다.

운동선수들의 화려한 여성편력은 세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프로 팀이 머무는 호텔에는 이들과 관계를 맺어보려는 여성들이 늘 북적거린다고 하니 넘치는 힘과 돈이 있는데 제 발로 찾아들어오는 여성을 마다할 젊은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본다.

하나님은 신체적으로는 여성을 남자보다 약하게 만들었으나 남자에게는 끊임없이 분출하는 청춘의 샘을 허락하여 남자로 하여금 여자의 밑에 두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결코 어느 것도 우월할 수 없도록 평형의 원칙을 고수하는 하늘의 법칙이다.

Woods가 누구를 강간한 것도 아니며 더욱이 돈을 들킵 받고 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이제 나타나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며 더욱이 그와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며 돈이라도 벌려고 하는 알파한 상술은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생각이다.

동시에 Golfer는 Golf로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심판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다. 더욱 그는 수도승도 아니며 정치인도 아니며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지 않은가?

그의 부인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70 번을 용서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그것의 7배를 더 용서하라" 고 했다.

그를 그토록 열광하던 세상이 단지 그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그를 파멸로 몰아넣는 세대가

좀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남의 여자에게 음심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를 심판할 자격이 있었는가?

더욱이 미국은 용서를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

Putting을 성공시킨 후 포효하는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다시 보고 싶어 한다.

토막 과학상식

구름은 어째서 떠 있을까?

'척력'에 의한 진공공간이 열쇠

김성건(공대 56)

수증기, 즉 물분자의 덩어리인 구름은 어째서 하늘에 떠 있을까.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신기하다든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대개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물리학자 등 과학 분야 전문 교수들은 당연히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름에는 상당량의 진공 공간(Vacuum Space)이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름은 수증기의 집합체다.

수증기는 물 분자의 변형된 상태며 물 분자는 질량이 있다. 물의 비중은 1이다.

수증기의 비중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가 심하지만 약 1,500분의 1에서 1,600분의 1 정도다.

하늘에 떠오른 증기는 인력에 의해 수증기끼리 모여 구름을 이루고 이 구름은 구름의 비중에 따라 공기의 적당한 밀도에서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떠 있는 구름의 전체 무게는 이 구름과 같은 부피의 공기의 무게와 같다(단

같은 고도, 같은 밀도에서).

따라서 ▶구름의 전체무게=총 물 분자 + 진공 공간 + 섞여 있는 공기=구름과 같은 부피의 공기의 무게가 된다.

또 ▶진공공간=구름과 같은 부피의 공기의 무게-총 물 분자의 무게-섞여 있는 공기의 무게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구름의 크기에 따라 수 톤~수천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이치도 이 진공 공간의 부력의 힘 때문이다.

마치 수만 톤의 철선이 바다 위, 즉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진공 공간은 물 분자의 Repelling Force, 즉 척력(斥力)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물 분자로 이루어진 구름도 척력으로 막(Membrane)을 이루고 있다. 이 Membrane은 음파와 전파를 반사하기도 한다.



동문탐방

이데올로기의 비극



이북에 남은 오 동문의 가족들 모습이다.왼쪽부터 큰 딸 혜원, 아내 신숙자, 작은 딸 규원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가족두고 탈북한 오길남 동문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1985년 독일 유학 당시 가족과 함께 월북했다 탈출한 오길남(68·사진) 동문(독문과 70년졸)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탄식했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오 동문은 “술에 의존해 과거에 얽매인 채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WP는 인터넷판에서 ‘북한의 잔악함에 파 괴된 한 가족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오 동문의 인터뷰 기사를 실고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이 두 딸과 아내를 이끌고 월북했다가 홀로 탈출해 피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했다.

1985년 독일 튀빙겐에서 유학하던 오씨는 평소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들을 곧잘 하던 학생이었다. 이런 그를 눈여겨 본 북한 기관원들은 오씨에게 다가가 간담을 앓고 있던 아내의 병을 낮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좋은 직장도 내주겠다고 피었다.

“아내는 북한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나는 반대를 무שי했죠.”

동독과 소련을 거쳐 이들은 평양에 1985년 12월 3일 도착해 산악지대의 군부대로 끌려갔다.

오 동문은 “군부대로 끌려갔을 때야 비로소 아내의 말이 옳았고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내의 간염 치료는 커녕 이들은 수개월간 김일성의 교시

들만 반복 학습해야 했다.

이후 대남선전 방송에서 일 자리를 얻었지만, 북한 당국은 오씨에게 곧 독일로 돌아가 한국 유학생들을 포섭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물론 가족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내가 한국 유학생들을 데려

가세트데이프 한 개와 함께 가족사진 여섯 장을 전달했다. 다음 사진은 그 가운데 하나다. 그곳에는 큰딸 혜원과 둘째 딸 규원의 잘마한 편지도 들어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렇다.

“아빠! 나 혜원이야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즐겁게 보내는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 부디 몸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 내어 부르니 울음이 납니다. 아빠! 나는 규원이야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와 만나는 날 나는 무엇을 선물할까요? 아빠, 안녕! 1991년 1월 11일 평양에서”

19년 전 오 동문은 독일 주재 비공식 북한 기관원들을 통해 아내의 자필 편지와 눈발에서 찍은 사진, 딸의 음성 녹음 테이프를 전달받기도 했다. 딸은 녹음테이프에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먹었다. WP는 오 동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악명 높은 ‘15호 수용소’는 공개처형이 흔하고 구타와 강간이 횡행하며 수감자들은 굶주림과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했다.

또한, WP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개의 수용소에 15만4천명을 투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조선일보 인용>



오겠다고 하자 아내가 내 양심에 비춰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때렸어요. 북한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도 했죠. 교통사고로 이미 가족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북한당국의 지령을 받고 독일로 향하던 그는 결국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구조를 요청했고, 1992년에는 한국 대사관에 자수했다.

오 동문이 북한을 탈출한 직후 그의 아내와 딸들은 체포돼 ‘15호 수용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1년 1월 20일, 윤이상씨가 오 동문 가족의 육성이 녹음된

음악칼럼

팝송 이야기<6>

Hillbilly Music & The Carter Family



주혜정 (음대 92)

힐빌리 음악이 무엇일까요? 이 음악은 후에 ‘Country and western music’ 혹은 줄여서 ‘country music’으로 불렸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컨트리 음악의 시조입니다.

힐빌리 음악은 포크 송, 발라드, 영국 이민자들의 춤곡에서 주로 발전했습니다.

컨트리 음악은 남부 백인들에 의해 쓰여졌으며 백인들을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라디오와 레코딩이 힐빌리 음악을 전파하는데 주로 쓰였고 1920년대에 널리 유행했습니다.

악기는 피들(fiddle)·기타·반조·하모니카·드럼·만들린·피아노가 쓰였으며 노래 내용은 종교적인 것, 사랑, 가스펠에 관한 것입니다.

힐빌리 음악의 특징으로는 우선 컷제, 멜로디와 가사가 동등하게 중요하고, 화성 구조는 단순하며, 리듬 역시 간단하고 쉽습니다. 악보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한 마디는 세 박 혹은 네 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컬 스타일은 민스트렐(minstrel music)과 틴팬앨리(Tin Pan Alley)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음악의 주요 아티스트로는 The Carter Family와 Jimmie Rodgers가 있습니다.

The Carter Family(사진)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카터 패밀리는 컨트리 음악 그룹인데 리더인 A.P.Carter와 그의 부인 Sara, 그리고 Carter의 제수인 Maybel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Carter Family

Carter는 포크 송을 수집하고 편곡하는 일을 주로 했고 Sara는 리드 보컬이었으며 오토하프와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Maybelle은 하모니를 노래했으며 스틸 기타와 오토하프를 연주했습니다.

Maybelle은 혁신적인 기타 연주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Bass String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시에 Upper String으로는 오프 비트에 리듬을 연주했습니다. Maybelle의 기타 연주는 점차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었습니다.

카터 패밀리의 대표곡으로는 ‘Can the Circle be Unbroken (1927)’이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hlio-0Z7yKg>

(The Carter Family/Can the Circle be Unbroken)

이 노래는 전형적인 힐빌리 음악의 예로 Carter Scratch 혹은 Carter style으로 알려져 있는 스틸 기타 연주법의 좋은 표본입니다. 1988년에 그래미 상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화성 구조로 돼 있으며 노래 내용은 죽음·장례에 관한 것입니다.

The Carter Family는 1927년에서 1943년 사이에 활동했으며 그들의 음악은 블루그래스·컨트리·남부 가스펠, 팝파록 가수들, 1960년대의 U.S. Folk Revival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Acropolis Times>



기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방은호(약대 43입)

1885년 오랫동안의 쇠국정치와 구습 등 은둔의 나라 한국은 빈곤과 무지 가운데서 장래가 없는 기아상태로 허덕이고 있는 처참한 처지였다.

정치적으로는 호시탐탐하는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압력으로 종전등화회의의 참담한 신세였다.

그러나 2010년 오늘은 세계수 많은 나라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예술·스포츠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속하는 자랑스러운 발전국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로 군림하고 있다.

참으로 천양지차 ‘별천지’라는 표현은 우리를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아름답고 우수한 경기와 놀라운 성과를 감탄하며 한국을 자랑하며 큰 자부심에 마음이 부풀어진다.

100여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서 특히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서유럽 동계 올림픽 강국을 누르고 5위에 군림한 사실은 놀라운 업적이며 가슴 상쾌한 대거사다.

과거 국제경기 중 특히 수영·단거리·육상·스케이트 등은

1885년 ‘어제’와 2010년 ‘오늘’

‘한강의 기적’ 은인들에게도 감사해야

한국은 체적·체력상 경쟁할 수 없을 정도 빈약해 상대가 안돼 우승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겨우 참가할 지경으로 빈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동계 올림픽의 꽃인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의 금메달 성취는 말로 다할 수 없이 위대하다.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며 기술·연출 모든 면에서 완벽해 사상 최고점 기록은 참으로 당연한 귀결로 정탄할 따름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세계 광고시장에서 최고 비싸며 내은 사인 광고에 초미라고 말할 수 있는 뉴욕 중심지인 타임스 스퀘어의 우리의 현대·삼성·기아·LG의 찬란하고 휘황한 색채의 네온사인은 수많은 관광객을 확률한 지경으로 몰고 간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상품은 미국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고 알아 주지도 않은 존재였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국 냉장고 등 제품이 그 유명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활개치고 있지 않은가.

해방되던 1945년 우리 한국 전국을 통털어 자가용 수는 100대도 안된다고 추정된다. 그러한 우리나라는 오늘날 남한 방방곡곡은 자동차 범람으로 주차할 곳도 없어 큰 골치거리로 대두하고 있다.

지금부터 62년 전인 1948년 나의 미국유학 시절만 해도 한국이라는 명칭은 캘리포니아 어느 작은 동네 정도로 많은

미국인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야 말로 미지의 나라 존재였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너무나 변천 발전했다.

오늘날 첨단산업인 IT·전자공학·Bio-Medical 등은 물론 조선·토목·건축·의료·영상·음악 세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리 한국은 지도적 역할을 즐기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사실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깊이 인식해 그 의의를 감사하며 기려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것은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합하여 성취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근면·독심,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열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 미국과 UN, 미국원조 등이 합쳐져 있는 데도 기인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 원천이며 활력소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인천)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고 증명한다. 1883년 고종황제의 보병사절단 일행은 시카고에서 워싱턴

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감리교목사며 교육가로 동양선교의 큰 지지자인 가우처 박사를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가우처박사는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할 뿐 아니라 한국선교의 중



교사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시작했다.

아펜젤러 목사는 배재학당을 스크렌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각각 1885년과 1886년에 창설한 것이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신교육의 효시이자 새 문화와 더불어 새로운 생활과 사상을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투입하는 일대 계기가 됐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남녀노소 귀천없이 전파되며 계몽운동이 빠르게 됐다.

2010년 오늘, 125년 전인 1885년 어제를 회고해보며 선구자 선교사와 배후 후원자의 사랑·봉사·희생을 마음 속으로부터 기억하고 감사해야 마땅하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성취의 도가니 가운데서 오늘을 가져온 어제를 잊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감사와 보은의 겸허한 자세와 마음을 갖자.

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그 결과 마침내 아펜젤러 목사(맨 위 사진)와 스크렌튼 여사(두번째 사진)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에 왔다. 이 때 언더우드 박사(맨 아래 사진)도 같은 날 왔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세 분의 선



중국의 급성장은 ‘미국 쇠퇴론’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전인민대회’ 장면

<5페이지에서 계속>

경제규모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경제력의 잠재력은 그 경제력을 형성하는 근본이다.

로마나 명나라, 대명제국이

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 경제력의 근본은 농업·상업·교역·국가산업, 노동집약 제조업 등에 있지만, 미국 경제력의 근본은 자본집약 제조업과 기술지향 서비스업에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 GDP의 구성을

분석해보면 국제교역보다는 국내경제분야(국내소비가 GDP의 70%)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무시 못할 미국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

융통성과 적응성

정치력의 측면에서도 미국의 정치제도의 힘은 무시 못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대통령제와 의회주의를 적절히 결합한 미국식 민주주의제도와 그의 운영하는 스타일인 융통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이다. 20여년 전에 미국 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는 체코 대통령인 바크라브 하벨이 미국의 독특한 정치제도를 칭찬한 바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각양각색의 1천가지 이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의 위대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여년 동안 중단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질

주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세계 최고 재정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지금의 경제위기와 의회정치 교착을 관망하면서 ‘융통성있는 미국경제’와 ‘적응성있는 미국정치’를 확신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 민주주의 제도운영을 관찰하면서 “도구의 결합은 장인의 우수성을 증명한다”라고 한 어느 현법학자의 언급이 그리 틀린 관찰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쇠퇴론에 얼마의 허가 있고 미국의 지배적 역할이 21세기에도 견제할 것임을 제창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세력이 21세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부상하게 될 것임을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국의 세력부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생각이나 자제가 있다.

제로-섬게임과 윈-윈게임

작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수

싱크탱크인 로워 연구소가 중국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의 응답자들이 ‘중국세력 부상에 위협을 주는 나라는 미국이 제1’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미국내에도 미국의 지배적 역할에 관해서 중국이 제1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 경제학과 국제관계학이 던져주는 중요한 원리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 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윈-윈 게임’의 원리가 경제성장과 세계화발전의 적용된다고 하는 진리다.

부시 대통령의 경제자문이었던 그레고리 덴키위가 제창한 바와같이, 한 편이 이기면 다른 편이 져야 하는 스포츠 경기와는 다르게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결과하는 ‘교역(Trade)’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공연관람기

‘인순이’ 씨의 뉴욕 공연

“쌩!”

조태환(상대 56)

뉴욕 맨해튼 중심가인 57th Street 와 7th Avenue 모서리에서 지난 2월 5일 밤 아홉시 반 쯤 합성으로 들리는 소리였는데 단체관광을 온 한국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보았더니 Carnegie Hall 대연주장 Isaac Stern Hall에서 모두 80은 넘어 보이는 100여 명의 미국노인들이 맨 앞좌석에 앉아서 목청껏 합창으로 질러대는 소리였다.

독자들께서는 “누가, 하필이면 미국 노인들에게 이런 쌩소리를 가르쳐 주었답?” 하고 궁금해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사연은 아래와 같다.

카네기 홀서 벌어진 장장 3시간의 공연

이날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장장 세시간 동안 Carnegie Hall을 빛나게 해준(Carnegie Hall에서 노래하는 영광이 아니라) 인순이씨가 가요곡을 열창하던 중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자신이 어떤 구절을 노래하고 나면 관객들은 “헤이”라는 소리를 합창해달라고 몇 번 연습을 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 “헤이”를

“쌩!”으로 고쳐 합창해 달라고 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쌩!” 합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미국 노인들에게 인순이씨는 “쌩!”이 ‘기를 쓰는(Energy boosting)’ 한국말이라고 말해 주어 미국 노인들이 열심히 기를 쓰며 그런 합창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친도 한국전 참전용사

이 미국 노인들은 인순이씨의 특별초청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었다.

공연중 잠시 자신의 어려웠던 지난 날을 회상해본 인순이씨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국전 참전 미국 흑인병사였던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 하며 살아왔다”고 얘기했다.

어느 날 미군 한국전사자 묘지를 방문하던중 묘의 주인공들이 16세·17세·18세 등의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음

는 생각이 들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생명을 바쳐서 지켜준 전몰 장병들이 감사하게 생각됐다고 한다.

이날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면서 노래도 불러드리며 전 한국인의 감사를 대신 전한다고 얘기해서 필자는 “인순이씨가 훌륭한 친선대사구나”하고 고맙게 생각했다.

시간방 땔었던 필자

1950년대 초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는 아마 음악 선생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가곡이 아니면 음악이 아니라고 해가면서 가요곡들은 모르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고 건방울 땔어가면서 지냈는데 가곡 몇개를 창가처럼 부를 줄만 알았지 클래식 음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오페라 같은 것은 한 번 가보지도 못한 주제였다.

60년대 초반 유학생으로 와서 고학하느라고, 그 다음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가곡이든 가요든 음악과는 담을 쌓고 살아 오다 어느 날 ‘황성옛터’와 ‘두만강’과 ‘목포의 눈물’이 무척 아름답게 들리면서 세계적 음악이라는 감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 때 좁은 한국의 가요계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새로운 명곡들이 많이 나왔으나 필자는



다는 무도회같은 난장판(?)이었는데 그럼에도 한국 관람객

지계를 양 어깨에 진 사람들답게.

이 날 인순이씨는 너무나 다양한 레퍼터리로 환란한 공연을 보여주었다.

오페라 아리아에서 우리 판소리까지, 현대의 모든 가요곡에서 라틴계통의 노래까지 넓은 음악을 품에 잘 맞는 춤과 발레 댄서같은 움직임을 해가면서 아주 Witty한 대사에 확 터진 목소리로 열창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녀를 보고 가만히 앉아 있던 관객들은 아마 교회 부흥회에 가서도 즐겼던 사람들일 것이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랍니다”

성량이 풍부하면서 킬킬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미국 공연을 위해서는 Gospel Song과 미국 가곡 가요곡들을 더 불러주었으면 싶었다.

약간 아쉬운 것은, 미국 관객들을 위해 영어대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완전하리라고 생각됐다.

어려운 역경을 모두 이겨낸 사람답게 당차고 낙천적인 성격이 공연중에도 잘 나타나는 인순이씨.

그녀는 관객들을 도리어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고 “꿈을 버리지 마세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랍니다”라는 생활철학까지 얘기해주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공연을 마쳤다.

생면부지의 나라 위해 목숨걸고 싸워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공연 중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사의 뜻 전해

을 알게 됐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미국노래도, 한국노래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돼 있었다.

그무렵부터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던 한국 가수중 한 사람이 인순이씨였는데 오래 전의 첫번째 뉴욕공연은 놓쳐버려 2월 4일과 5일의 공연은 광고가 나오자마자 표를 구입했다.

2월 5일 공연에는 Maryland 주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관객들이 오게 돼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에 30인치나 되는 폭설이 내려 그들이 오지 못하게 됐다고 인순이씨는 섭섭해했다.

다음 뉴욕 공연은 미국의 모든 유명한 흑인가수들이 지나간 할렘의 Apollo Theater에서 했으면 좋을것 같다.

Carnegie Hall은 이미 재수를 했으니 이제 그만 졸업을 하고.

공연내내 기립박수 받아

인순이씨 자신이 “광란의 밤”이었다고 표현한 4일의 쇼에 이어 5일 밤 공연은 저녁내내 기립박수와 좌석에서 춤을 추는 관객들로 음악회라기 보

들의 매너가 그렇게 질서 정연하고 예절이 밝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쇼중 관객석을 몇번이나 내려와 돌아다니며 열창을 한 인순이씨도 아마 깊은 감명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

“You made it here now!”

이날 부른 노래중 ‘New York, New York’가 있다.

이 노래의 가사중 “If I can make it here, I can make everywhere”라는 대목을 그렇게 힘주어 부르기에 필자는 속으로 “You made it here now!”라 대답해 주었다.

젊은 관객들이 많았고 제대로 흥을 내며 놀 줄 아는 것도 그들이었다.

그런데 드문드문 끼어앉은 필자 또래의 영감대기들은 멋적은 박수나 어색하게 쳐들 뿐 놀 줄도 모르는 불쌍한 세대들이었다.

‘해방·6.25·이민’이라는 한국역사의 무거운 짐을 실은



기고

동문예찬

10년만의 해추



김경태(의대 49)

10년 성상(星霜)이라든 짧기도 하지만 길기도 한 세월이다. 돌이켜 보면, 헤어질 때만 해도 흥안에 젊은 티가 가시지 않은 60대 후반이었던 그가 이번에 만나고 보니 지나간 세월과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80을 눈 앞에 둔 영년없는 호호야(好好爺) 노릇이 됐다.

그런데 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10년은 고사하고 20년이 지나도 생사여부조차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재회의 기회를 학수고대하던 10년 세월은, 긴 시간이었다. 하기가 3시간대나 되는 넓은 땅에서, 친 형제도 헤어지면 좀처럼 만나기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 전화로 '금년에는 학회에서 만납시다' 하는 막연한 약속을 했으면서도, 한번도 실행된 적 없이 지내온 세월이다. 그러던 차, 두어달 전에 난데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오는 Thanksgiving에 New York에서 Family Reunion이 있으니, 그때 만날 수 없겠느냐' 하는 전화였다. 물론 당장에 'Yes' 라 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해 지우(知遇)하게 이른 것은, 필라델피아에서 20여년 지내는 동안이었다.

첫 만남에, 남달리 명민한 그의 지능에 감명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교우관계가 깊어지고, 공통된 취미와 관심사를 나누는 동안, 무궁한 깊이 그에게서 느끼게 됐다.

그의 남다른 왕성한 지식욕에 다독과 정독으로 광범하고 깊은 정보를 파악해서 알기 쉽게 머릿속에 정리해 개진하는 비상한 재주에 탄복한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는 본업인 의학에 대해서도 언제나 최신 의학정보를 지상에 발표하는 꾸준한 면학태도에 게으르지 않았다. 흔히 많은 과학자들은 전문 분야의 학업을 대학에서 수업한 후 사회에 나가서는 일반 서적을 멀리함으로, 전인적인 교양을 쌓는데 무관심한 경향을 본다.

그의 또다른 특이점을 든다면 전문분야 아닌 문학과 역사 등 넓은 인문분야를 아우른 방면에도 전문가를 능가하는 조예와 수양을 쌓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무척이나 좋아한 책벌레인 아들을 보다 못한 훈장(訓長)이었던 엄친께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뛰어 놀지 못할까!" 하고 일갈(一喝)하시곤 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사로운 내 의견에 지나지 않지만, 해마다 김장철이 지나 X-mas 전후가 되면 한국에서는 대학입시 발표로, 환성과 초추검의 희비가 교차돼 온통 뒤집힐 정도다.

해마다 가장 높은 Cutline에 속하는 서울대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고는, 어쩐지 고개가 좀 가우뚱 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한번의 시험점수로 갈로베듯 사람의 지능을 판단하고, 인생을 그렇게 간단히 판가름내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듯하다.

하여튼 그렇게 좁은 문을 뚫고 입학한 학생 중 정말 장원급이라고 할만한 준제를 다시 엄선한다면 기껏해야 한 학급에 한 명 될까 말까할 정도다.

연구 분위기가 아직도 미비한 한국의 요즈음 실정에서, 당분간은 노벨 의학상이 나올 가망성이 요원한 바에야, 그런 인재를 의과대에서 묵히고, 유효하게 쓰지 않은 것은 국의의 낭비라 생각한다.

굳이 이곳 어느 특정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 한 예를 든다.

최정(最澄)이나 공해(空海) 같은 고승들이 나라에서 업선 끝에 총명함을 인정받아 국비생으로 목숨을 건 결사적인 위험한 항해 끝에 전당사(遣唐使)로 당나라에 유학을 떠난 것이 서기 800년 초의 일이다.

여러 척의 파견선 중 무사히 돌아온 배는 겨우 한 척에 불과했다는 소문이 돌자, 모처럼 영예롭게 전당사에 선발된 사람도 집을 먹고 도망치는 자들도 더러 있을 법 하다. 그런 자들을 수색해서 체포하면 귀양 보냈다고 한다.

특히 空海가 중국에서 도입한 밀교(密敎)로 인해, 일본의 불교사상은 한 차원 높은 경지에 다다르게 됐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아,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래도 때늦게나마 그들에게 본 받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근세에서 선진화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식욕이 왕성한 그들은 에도막부 시절에도 구하기 어려운 난서(蘭書)를 얻기 위해 귀여운 딸까지 책과 바꾸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당시는 제대로 된 번역한 사전도 없이 그러저럭 힘들게 구한 네덜란드 책들을 밤새 번역해서 서구문명을 공부하고, 선진기술 도입에 전력을 다했다.

자고로 학자들은 처세술이 우둔한 편인지라, 졸업 후 요령 좋게 다들 기피하는 군 입대를, 당시 국민개병의 의무감과 분위기 속에서, K동문은 복무기한을 채우고 제대했다. 군복을 벗고 보니, 한국처럼 배경과 학벌이 설치되는 위계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성공의 환스를 설기한 것을 느끼게 됐을 것이다. 그는 새 도약을 위해 식솔을 거느리고, 실력위주 사회인 도미를 결심했다. 그런대로 수련을 마친 후, 당시 힘들다고 하는 내과전문의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 미로소 미국이라는 낯선 사회에 한 발자국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런데 예상 외로 미 의학계에도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그는, 그동안 배운 의학과 거리가 먼 생명 윤리학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지난 1970대 암 연구자인 V. R. Potter가 'The Science of Survival' 라는 제하에 Bioethics라는 개념을 제창해 의학계에 논의를 일으켰다.

안락사(安樂死)에 관한 의학적인 논의는 이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최근 유전학과 Biotechnology의 발달로 생명의 의미가 흔들리게 시작, 새로운 윤리개념이 생기면서, 대통령 선거 토론에도 생명의 시작과 Abortion문제, Stem Cell 연구와 윤리 문제 등이 Hot Issue가 된 적도 있다.

K동문은 뇌사(腦死)·안락사·존엄사(尊嚴死)·장기이식, 암의 고지(告知), 말기 의료 등에 대한 깊은 소견을 수십차례 의학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한 것을 일일이 기술할 수 없다.

무릇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욕구를 몇 가지 들자면 식욕과 성욕은 생물체 유지와 번식의 원형생리적 욕구에 속한다. 다음은 안전욕구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예측된 환경 속에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 당연한 기본욕구다. 이런 욕구가 만족된 후에야 보다 한 차원 높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

다음은 명예욕구다. 사람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자기성취에 해당하는 존중을 원하므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안전욕구와 명예욕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치되는 경우가 흔하다. 말하자면 명예욕구에 너무 치우치면 안전욕구가 희생될 수 있다.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는가는 개인에 달린 문제다. 드물게는 이 두 욕구가 양립할 수가 있다.

그러나 타고나면서 배경이나 재력의 뒷받침이 있는 사람 외에 어느 사람에게는 그런 행운이 오는 일이 드물다. 더구나 대학 졸업후 바로 병역의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몇 년간의 군복무는 임신 과정에서 치명타가 되기 일쑤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여러 욕구를 망라해서, 길어진 인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의미에서, 그의 자아실현 욕구를 결산해

보기로 하자.

이 욕구는 개인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고,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 자기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알맞는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고 희망하는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여러 피치 못할 환경 탓으로, 처음 목적의식의 동기에서 벗어나가는 과정에 따라, 부닥치는 현실과 절충해야 하고, 따라서 이상과 포부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흔히 자기의 안전과 자존심에 위협받을 때 망어장치가 작동하게 된다. 그는 쉬 굴하거나 쉬지 않고 어떤 형태든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위해 타협으로 승화함으로써 자기의 잠재능력을 계속 불태우고 있는 듯하다.

다음은 인간이 욕구가 서서히 식고 난 다음 재(灰)속에 파묻힌 숯불과 같이 은은한 화기(火氣)를 지닌 심미적욕구다. 이것은 아름다운 문학, 예술, 음악 등을 느끼고 감상하고, 누리려는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최종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욕구는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특정한 소양인에게만 되살아나는 욕구다. 오랜 세월 그 방면의 교양과 수양을 쌓는데 게을리 하지 않은 K동문 같은 분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문예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심미안과 감각을 지닌 한 사람으로 심미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며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생리적 욕구를 비롯해서 저급한 욕구들은, 그 욕구가 충족되면 곧 식어버리는 것과 달리 계속적인 자기발전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둔 지식욕과 심미적 욕구는, 그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 증대하는 경향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K동문 같은 분은 먼 훗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잠지도 쉴 수 없는 팔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지난 해 그와 만난 주일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추수감사 주일이였다.

< 3페이지에서 계속>

하토야마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반한 부인 모두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대부분의 일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위 한류붐(韓流 boom)의 영향을 언급한 듯 한데 같은해 12월 일본 내각부(內閣部)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동년 10월 15-22일 무작위로 선정한 일본 전국 20세 이상의 3천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방식의 여론조사(일본어로는 世論調査)에서 '일한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이 66.5% 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그가 이끄는 정권은 "역사를 똑바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권이지만 무엇이든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와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그가 구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

겐(Grand Bargain 일괄타결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에도 있는 납치문제를 같은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걸림돌로 남아 있는 문제들은 역사 인식문제,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만성 무역적자 문제 등이 있는데 모두 양쪽의 인내와 결단, 그리고 양보가 필요하다.



세계명화 감상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세계



은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게스 크 표현법을 사용하여 입체주의를 시도한 첫 작품으로 현대 미술이 탄생한 계기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작품을 본 마티스를 비롯한 화가들과 미술 평론가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혹평하여 피카소는 이 작품을 말아 두었다가 수년 후에 발표하였다.

2년 전 이 작품의 제작 100주년을 기념하며 주간지 'News Week'는 지난 100년 동안 현대미술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중요 작품으로 선정했다.

Guernica(1937)

‘게르니카’ (아랫쪽 그림)는 피카소의 미술 생애 최고의 걸작이면서 어쩌면 20세기 현대 미술사에서 최고의 명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스페인의 시민전쟁 때 나치 독일이 스페인 후방코 총통의 편을 들어 스페인의 게르니카 마을을 공습하고 폭격해 몰무짓으며 비탄하는 시민들과 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당시 파리 세계 박람회의 벽화로 제작했는데 11피트 높이와 25피트의 폭백으로 그린 대작이다.

게르니카에서 일어난 참상을 그의 입체주의적인 독특한 변형으로 피카소 자신이 분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처절하게 표현하였다.

이 그림의 중앙에 자리잡고, 민중을 상징하는 딸의 비명과 고뇌,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처참한 모습, 특히 폭력을 상징한 황소 밑에 깔려 죽은 아기를 안고 울부짖는 여인과 학살당하는 민중의 분노를 강력하게 표현하면서도 희망의 등불이 표현되고 있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풀꽃이 있다.

정치적으로 악한 자의 만행을 규탄하고, 예술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그처럼 강력한 힘을 발산하고 있는 표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연대미술의 대명사

입체주의 창시, 90평생 불후의 명작



임이섭(미대 54)

‘피카소’라는 이름은 현대 미술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블로 피카소(1881~1973)’는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평생 미술활동을 했는데 20세기 현대 미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화가며 조각가다.

그의 화풍은 20대에 벌써 비상한 사실주의의 재능을 발휘해 ‘청색시기’ ‘장미색 시기’를 거쳐 유명한 입체주의를 창시하고, 그 뒤 견잡을 수 없는 스타일과 테크닉의 진전으로 20세기 현대 미술을 주름잡은 대가다. 90평생 쉼 수 없는 많은 명작을 제작했는데 그중에서 세 명작을 감상해본다.

거울앞의 여인(1932)

‘거울앞의 여인’ (위 왼쪽 그림)은 5.34피트 높이로 1932

년 그의 22세 젊은 연인 Marie Therese를 모델로 그린 작품이다. 1938년부터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 전시돼 당시 미국 미술의 새로운 표현주의의 안내자 역할을 한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세기 전반의 현대 미술에서 중형무진 변화하던 그의 작품 경향을 종합한 듯 전통주의와 표현주의, 그리고 입체파 화풍을 망라하면서 율동이 넘치는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으로 구성된 걸작이다. 이 그림은 당시 시그먼드 프로이트의 패를 같이 하여 인간의 내면을

해부하는 다분히 심리학적 요소가 짙은 난해한 작품이다.

거울을 보고 있는 여인은 맑고 화창하고 성적인 매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어둡고 차디찬 색깔로 1차대전 후 당시 전운이 감도는 불안하고 부조리했던 시대의 인간상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 그림의 한 여인 속에서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중적 갈등을 보게 되지만, 이 여인은 거울에 비친 또 다른 자기를 두 손으로 포옹하고 있는 것도 이 작품이 변화와 통

일을 성공적으로 다룬 것을 볼 수 있다.

다비농의 여인들(1907)

‘Les Femmes d'Avignon’ (The Young Ladies of Avignon, 위 오른쪽 그림)은 1907년 완성한 높이 8피트에 가로 8피트의 대작으로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이 작품은 바젤로나의 아비농 거리 부둣가에서 뱃사공 손님을 기다리는 다섯 명의 창녀들이 각각 선정적 제스처를 보여주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20세기 초 프랑스 인상파들의 황성기에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파격적 표현 방법을 추구했다. 원근 투시법을 무시하고 모양을 해부해 평면 단위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오른쪽 두 여인의 얼굴



지역 소식

지부 뉴스 & 동문 동정

동문 문봉주 목사

‘성경의 맥을 잡아라’ 출간

뉴욕의 전 총영사인 문봉주 동문이 목사로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후 신간 ‘Threading the Bible(두란노)’를 영문판으로 발간했다(아래 사진 참조).

‘Threading the Bible’은 문 동문의 베스트 셀러였던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영역한 것으로 특별히 미주 한인 1.5~2세들을 위해 영어로 출판된 성경공부 교재다.

이 책은 ‘성경의 맥~’ 중 구약편을 ‘Threading the Bible-Old Testament’로, 신약편을 ‘Threading the Bible-New Testament’로 나눠 쓰였다.

‘성경의 맥~’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지도그리기(Map)’를 통해 성경 속 인물의 삶과 신앙을 설명하고, ‘맥 잡기(Threader)’를 통해 신·구약 성경의 연결되는 부분을 알려준다.

그리고 ‘영성탐구(Spiritual Search)’를 통해 성경 말씀

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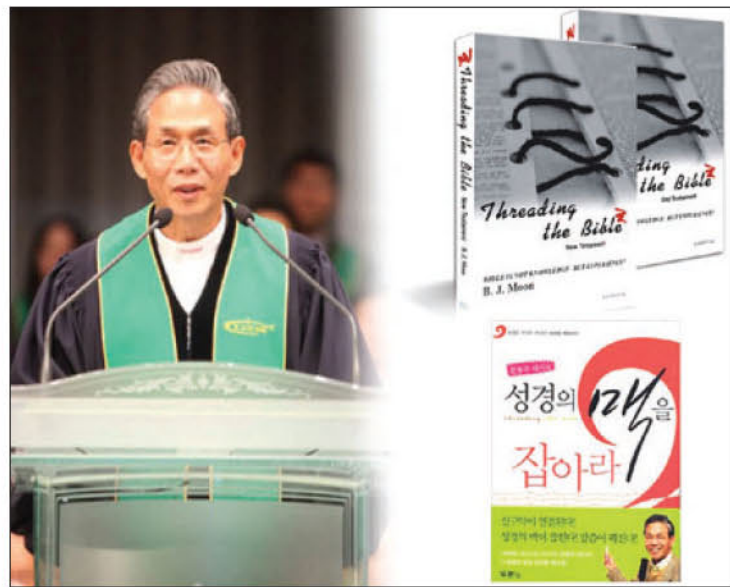
문 동문은 모교 외교학과 졸업 후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주뉴질랜드 대사, 뉴욕 총영사 등을 역임하다 목회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지난 2009년 6월 30여 년 간 봉직했던 외교통상부를 퇴직했다.

이후 햇빛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해 10월 목사 안수를 받고 은누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새벽형 크리스천(2004)’ ‘성경의 맥을 잡아라(2007)’ 등이 있다.

문 동문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일본 선교 사역과 ‘성경의 맥~’의 중국어판 외에도 스페인어판 출판을 준비 중이다.

‘Threading the Bible’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구입 방법은 웹사이트(www.threadingthebible.com)에 소개돼 있다. <한국일보 인용>

NASA 연구원
김성완 동문

모교 의대교수로 임용

차세대 우주왕복선 개발 참여

차세대 우주왕복선 개발에 참여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선임연구원 김성완(48·사진) 동문이 모교 의대 교수로 임용됐다.

1981년 모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김 동문은 1984년 신설된 서울대 의공학 협동과정에 합류, 한국인 체형에 맞는 인공심장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1987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듬해 미국 유학 중 의공학과 거리가 먼 연구를 하게 됐다. UCLA에서 박사 과정 중 자동제어 분야 권위자인 A. 팔라크리슈난 교수의 지도로 ‘항공분야 자동제어’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 동문은 그 뒤 영국 항공방

산업계 BAE 시스템스의 군용 유인 항공기 시스템 선임 개발팀장과 미국 보잉사의 수석 공학자 등으로 일하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무인항공기(UAV) 등의 자동 항법 제어장치를 개발했다. 2000년부터는 NASA 랭리 연구센터에서 차세대 우주왕복선 X-37 개발에 참여해 왔다.

미국 항공우주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그가 2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까닭은 초심으로 돌아가 못다한 의공학 연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국 항공우주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그가 2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까닭은 초심으로 돌아가 못다한 의공학 연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지은 동문 현대미술 공모전 ‘대상’

알 재단 주최, 한국일보 후원

알 재단(회장 이숙녀)이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후원한 2010년도(제7회) 현대미술 공모전에서 김지은 동문의 작품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김 동문은 이번 공모전에서 ‘Covered Bridge in Vermont’라는 타이틀의 작품(사진)으로 이처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알 재단의 미술 공모전은 젊은 한인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이 공모전의 올해 심사는 작년에도 심사를 맡았던 뉴욕타임스의 벤자민 제노치노 미술 비평가를 비롯해 뉴욕 뿐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들이 맡았다.

김 동문은 모교 회화과 석사

를 마치고 크랜북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수학했다.

그 후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와 마티스 파운데이션을 비롯한 유수한 펠로십 수상자로 키넨 하딩 벨슨 센터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하기도 했다.

수상자들은 올해 10월에 열리는 알 재단 기금 모금 행사에서 시상식을 가진 후 내년인 2011년 1월 웰시에서 입상자 그룹전에 참여하게 된다.



아이티 지진재난 성금기탁

남가주 동창회에서 1만 달러

‘한끼 절식을 통한
아이티 돕기 운동’ 결실

사상 최악의 지진 재난을 당한 아이티 돕기 캠페인에 남가주 동문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아크로를 통해 ‘한끼 절식을 통한 아이티 돕기’ 운동을 벌였던 동문들은 십시일반 온정

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감동받은 총동창회에서 매칭 펀드를 조성해 무려 9천68달러의 거금을 모아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양대 신문에 절반씩 전달했다.

동문들은 아크로를 통해 1천683달러를 기탁했다.

아크로 운영진은 이에 1천 달러를 매칭해 모두 2천683달러

←남가주 총동창회의 김은중 회장(사진 오른쪽)이 한국일보 김신용 총무국장(왼쪽 사진)과 중앙일보 김성수 사업국장에게 아이티 재건을 위한 성금을 각각 전달하고 있다.

를 아이티 지원 기금으로 총동창회에 기탁했다.

총동창회는 이에 매칭 펀드와 신년 총회 현장에서 취합한 성금 등을 합쳐 모두 1만 달러에 육박하는 거금을 아크로 성금으로 모아서 기탁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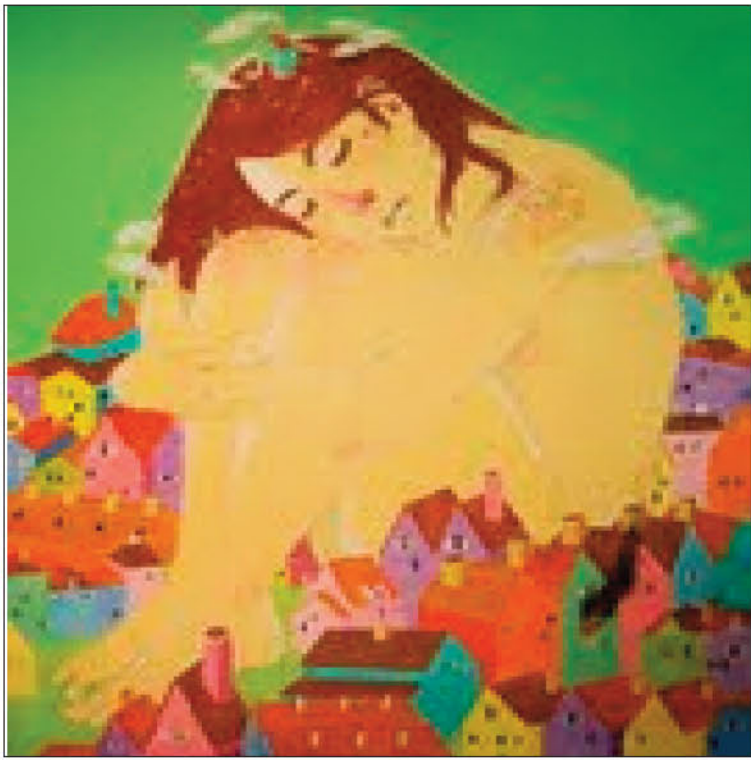
이같은 액수는 동창회 성금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돈이다.

동문회를 대표해 양 신문에 성금을 기탁한 김은중 회장은 “동문들이 이같은 뜻깊은 일에 동참함으로써 보람적인 동문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선양하게 됐다”며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한인 신문에 기탁된 성금은 각각 국제 적십자사와 월드비전으로 전해져 사상 최악의 지진 참사 중 한 곳으로 기록된 아이티의 재건에 쓰이게 된다.

지역 소식

지부 뉴스 & 동문동정



'스티브강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24명에게 5만달러 지급

시카고 동문의 '스티브 강 장학재단'이 12명의 대학생과 12명의 대학원생에게 금년도 장학금으로 5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중 16명은 새 옹모자며 8명은 전년도 장학생 가운데 계속 지원을 받게 된 학생들이다.

그동안 경제상태도 나빴지만 스티브 강 장학재단이 각 분야에서 우수하고 경제적인 지원

을 절실히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장래가 총망되는 특수한 학생을 찾는다는 소문이 나고 많은 Website에 소개되어서 인지 옹모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에는 우리 한인 2세나 한인 학생이 아닌 미국인 학생들까지 많이 늘었으며 그나마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옹모하여 장학금 심사 위원들이

선발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5천 달러=2명 ▶3천 달러=3명 ▶2천 달러=12명 ▶1천 달러=7명

금년도 장학 모금을 위한 모금 문화 행사는 8월 6일(금요일) 저녁, 작년과 같은 장소 Drury Lane, Crystal Ball Room에서 가질 예정이다.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후원해주신 후원자 여러 분과 동참해주신 회사, 기업인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올해도 성황을 이루는 뜻있는 행사를 가질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010년도 장학금 옹모마감은 9월30일이며 옹모 절차와 신청서는 sskangfund.org에서 찾아볼 수 있고 문의사항은 김벌리 강에게 630-572-9202 연락하면 된다.

왼쪽 그림은 장학금을 받은 유수아(Art Institute of Chicago) 학생의 작품 '도시'이다.



이우환 동문 구겐하임 회고전

백남준 이어 한국작가 두번째

미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을 오가며 작품활동중인 작가 이우환(74·사진)동문이 내년 2~3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연다.

이 동문의 한국내 전속 화랑인 국제 갤러리는 "내년 2월부터 두 달간 전시회를 열고 미국에서 두 군데 정도 더 순회 전시한 뒤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조각과 회화를 망라하는 대규모 전시라는 것이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국 철강업계 거물 솔로몬 구겐하임이 수집한 현대미술품

을 기반으로 설립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한국 작가가 이곳에서 개인전을 연 것은 2000년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회고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동문은 1956년 서울대 미대를 중퇴하고 일본 니혼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일본과 유럽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이 동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통해 사물과 공간, 위치, 상황, 관계 등에 접근하는 예술을 뜻하는 '모노하'의 중심인물로 평가되며 세계무대에서 통하는 몇 안 되는 한국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지휘자 정민 동문

부산소년의집 관현악단
카네기홀공연

정민 동문(음대)이 부산 소년의집 관현악단의 카네기홀 공연을 위해 뉴욕에 왔다.

악단의 지휘를 맡은 정민 동문의 부친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씨.

패기 넘치는 차세대 지휘자로 알려진 정 동문은 1984년 독일 자르브뤼겐에서 출생 후 프랑스로 이주하여 Lycee International Racine에서 문학 및 음악을 전공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서울대 음대에 입학

해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피아노를 공부했으며, 2007년부터 지휘에 전념하고 있다. 뉴욕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음악계에서 '한국 유학'을 택한 흥미로운 경우다.

정 동문의 이번 카네기 홀 공연은 부친 정명훈씨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미려를 오브 뮤직'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은 110명의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민 동문은 "어린 연주자들에게 카네기홀 무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이들은 지난 3달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자비를 보태 참가한 직장인 졸업생들의 열정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단원들의 수준에 대해 "아이들이 참 당차다. 솔로 연주에서도 한 치의 실수도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 동문은 "솔직히 한 6개월 정도만 생각하고 한국에 갔는데 한국의 음악 수준이 높아졌고 무엇보다 편안하고 좋아서 그대로 남았다"며 "덕분에 어눌하던 한국말도 늘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인용>

조수미 동문 아리아의 향연

AWCA 30주년 모금 콘서트

창립 30주년을 맞은 뉴저지 여성사회봉사센터(AWCA·회장 김현옥)가 서른살 잔치로 조수미(사진) 콘서트를 개최했다. 콜로라두라 소프라노 조수미 동문은 지난 3월 18일 오후 8

시 버겐 퍼포밍아트센터(버겐 PAC)에서 AWCA 기금 마련 연주회를 열었다.

뉴욕 중앙일보가 특별후원한 조수미 동문 리사이클은 오페라의 아리아와 정겨운 가곡으로 꾸며졌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비올레타의 아리아 '아, 그대였던가'를 비롯, 비발디의 '두 줄기 바람이 불아치고', 스트라우스의 '푸른 다뉴브강의 왈츠', 도니제티의 '나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그리고 헨델·로시니·구노 등의 명곡을 선사했다.

조 동문은 정다운 우리 가곡으로 향수에 젖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동진 작곡의 '진 달래 꽃',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 안정준

의 '아리 아리랑' 등을 들려주었다.

피아노 반주는 지휘자 출신 월 크러치필드가 맡았다.

뉴욕 카라무어 음악축제의 예술감독으로도 활동하는 크러치필드는 조 동문을 2005~2006년 카라무어의 헬칸토 축제에 초청한 바 있다.

조 동문은 모교 음대 재학 중인 1983년,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 입학했다.

그 뒤 베를린 필하모닉의 명지휘자 카라얀이 '신이 내린 목소리(Voice from Heaven)'라고 극찬한 바 있다.

조 동문은 밀라노 라스칼라, 런던 코벤트가든, 바스티유 극장,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오페라 하우스 등지에서 공연해 왔다.

1980년 뉴저지 프랭클린레이크에서 주부클럽으로 시작된 뉴저지 한인YWCA는 2000년 7월 AWCA로 독립했다.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AWCA는 가정문제와 사회복지상담, 시니어센터, 홈케어, 북클럽, 수필강좌, 입양인 교육 엔젤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WCA는 2006년 버겐PAC에서 신영옥 동문 콘서트, 2008년엔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빗 김, 피아니스트 백혜선씨의 골든트리오 콘서트를 열었다. <미주 중앙일보 인용>



지역 소식

지부 뉴스 & 동문 동정



‘시카고 골든 클럽’ 정기 세미나 열어

노화과정과 노년기 건강관리, 해외여행 계획도

‘시카고 골든 클럽(회장 박영규, 농 57일)’이 ‘노년기 건강관리’를 주제로 올 첫 세미나를 2월 25일 세노아 레스토랑에서 약 40명의 회원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강사 김태기 동문(의대 62, St. Joseph Medical Center, South Bend, IN)은 노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년기 건강문제 대응책을 소개했다. 약 40분의 강좌에 이어 질의 응답을 통해 유익한 건강 정보를 나눴다.

이어 골든 클럽이 2년간 추진해온 장거리 해외 여행계획에 관해 박연희 간사와 노재욱 부회장이 설명하고 회원 동참 요청을 설명했다.

이번 해외 여행은 뉴욕 아리랑 여행사 주선으로 8월 15일 시카고를 출발, 북유럽 발트해역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와 러시아를 관광하고 8월 26일 시카고로 귀환하는 스케줄이다.

이날 건강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화과정=노인이 되면 탈수 현상이 잘 생긴다. 특히 85세 이상 되면 갈증 감각이 줄어들고 피부 수축이 잘 안되며 혈관 조절도 부진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므로 수분 저장,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도 본인은 느끼지를 못한다. 탈수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미각도 퇴화해 85세 이상 되면 젊은 사람의 75% 정도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음식 맛을 내려고 소금과 설탕을 더 많이 가미해 건강에 해로워진다.

또한 80세가 되면 후각은 5~9세 어린이 수준으로 퇴화해 노인들이 향수를 진하게 뿌리게 된다. 시각도 망막에 이르는 광선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므로 실내 조명을 밝게 해야 한다.

노화와 함께 신체 균형 기능도 감퇴하므로 근육 운동보다는 균형잡는 운동을 한다. 층계를 5층 정도 걸어 올라갔다 내려오면 균형을 테스트할 수 있다. 노년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 흡수가 잘 안되므로 바이타민과 미네랄

을 더 섭취해야 된다.

기억력과 학습력이 떨어지므로 새 것을 배우는데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힘이 든다.

상실감을 처리하는 과정이 느려져 중요한 손실(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생기면 6개월~1년간 애도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이상 계속되면 엔돌핀이 줄어 2차적 디프레션이 생기므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억력 감퇴가 와도 교육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하면 디멘시아를 의심해 볼만하다.

▶노화로 인한 건강=병을 치유하지는 못하며 단지 컨트롤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수 밖에 없다. 그 중요한 컨트롤 요건이 운동과 음식이다. 따라서 근육 운동보다는 신체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맨손체조와 걷기가 좋다. 노인들은 낙상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 정형외과 환자의 30~40%가 노인 골절 환자이다. 낙상의 60%가 자기 집 안에서 발생하며 30%가 집 주변 10마일 안에서, 나머지 10%가

너싱 홈이나 병원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집에서 낙상 당하지 않도록 집 안에 장애물들을 없애고 광선을 밝게 해줘야 좋다. 낙상을 했을 경우 뼈가 손상됐는지 확실치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줘야 한다. 만약 뼈가 부러진 경우 1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면 회복할 가능성은 90%지만, 4시간 이상 되면 너싱홈에 갈 가능성이 90%이다.

▶집안에 관해=일반적으로 65~70세의 노인들은 한 번 정도 혈관 정상동맥과 동맥류(anurism)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 심장을 심전도(EKG) 검사만으

로 검사했다고 생각지 말고 노령자는 의사와 상의해서 CT Scan을 하는 것이 좋다.

장기에 관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하고 가족의 위암 역사가 없더라도 위내시경 검사를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한다.

눈의 검사는 Baseline exam을 해두어야 그것을 근거로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시력 퇴화를 대조해서 알 수 있다.

▶질의 응답에서 나온 요령 -폐결핵이 전에 양성으로 나왔다면, 또는 폐 질환 흔적이 10년 전과 같다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에 음성이었었는데 최근 양성으로 나왔다면 약을 먹어야 된다.

-전립선은 PSA가 1.5 nanogram 이상이면 전립선이 30그램 이상으로 부었다든가(10그램이 정상) 암일 가능성이 있다.

-근육마비(쥐)가 발생하는 데는 약의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것은 근육이 수축돼 발생하므로 근육을 스트레치 해주는 것이 좋다.

-치매는 아직 뚜렷한 원인규명이 안돼 있고 약의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 정신적 노화 상태의 치매를 구분하기 어렵고 디프레션과도 비슷하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혈액중 당이 낮을수록 좋다. 식후는 당의 레벨이 공복 때보다 2배 이상 오른다. 밤에 진땀이 나고 꿈을 많이 꾸면 저혈당 증세다.

-스트로크는 신체의 발생 위치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은 아무 증세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다.

스트로크는 발생 후 3시간 전에 병원에 가서 혈액 응고를 푸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양승열 동문
오페라 공연 지휘

하틀랜드 양승열 동문(음대 93)이 지난 11~14일 White Hall (UMKC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Donizetti의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e)’을 작품으로 한 봄 학기 오페라 공연을 개표했다.

이 작품은 매우 코믹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 동문은 현재 미주리 대학(켄자스 시티 대학)에서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부 지휘자(Assistant Conductor for UMKC Opera and UMKC Conservatory Orchestra)로 활동하

안병환 동문
장애위커미셔너 임명

한미 장애인협회장을 역임한 안병환 동문(의대 56)이 볼티모어 하워드 카운티 장애인 문제 위원회(Commission on Disability Issues) 커미



김상수 동문, BNB Bank 이사 취임

뉴욕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는 김상수(약대 64~68 경영대학원 68~71) 동문이 최근 뉴욕 BNB 은행이사에 취임했다. BNB Bank는 1986년 뉴욕

서너에 최근 임명됐다.

장애문제위원회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커뮤니티를 대표해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카운티 정부 자문기관이다.

안동문은 리처드 코헨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커미셔너로 구성된 장애위 가운데 유일한 동양인이다.

에서 설립된 연방은행으로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3개 주에 6개의 지점을 두고 4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은행이다. BNB 은행은 SBA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은행으로, 2009년 에는 SBA융자 실적이 뉴욕 메트로 지역 1위, 전국 순위 11위였다.

김 동문은 BNB은행 이사로, 본 은행의 자산부채관리 위원회와 감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73년 도미한 김 동문은 1977년 New York Univ.에서 MBA 학위후 공인회계사(CPA)로 뉴욕주 재무성 세무 감사국에서 10여년간 감사관과 감사 수퍼바이저를 지냈다. 1987년부터 뉴욕 맨해튼에서 CPA로 일해오고 있다.

송근숙 동문 ‘청소년 정신건강포럼’ 사회

헌터 칼리지 간호대학원 정신과 교수이자 뉴욕주 정신건강 자문위원회 고문인 송근숙 박사(간호대 66)가 지난

달 25일 ‘코리아 청소년 정신건강 필요성 평가’를 주제로 한

포럼의 사회자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뉴욕 아름다운 재단과 한미정신건강협회가 공동 추진한 것으로 한인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문제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다. 포럼은 카운셀러,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정부 정책 담당자 등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참석했다.

송 동문은 모교 간호학부 졸업 후 뉴욕대 간호학과에서 정신간호학 석사 이수 뒤 뉴욕병원과 롱아일랜드 유대인 병원, 사우스 옥스 정신병원에서 일하다, 롱아일랜드 아델파이대학에서 정신간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2004년부터 헌터 칼리지에서 정신간호학 교수로 지금까지 재직해 오고 있다.



미주센터 월례 강연회

LA의 서울대 미주센터가 지난 9일 이영훈 동문의 ‘한국 현대경제 성취와 배경’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참가 명복을 바랍니다

온타리오 주 황진숙 동문이 지난 1월 21일 부친상을 당했다.

동문 광장

칼럼·시·감동수기

아바타와 아이티의 눈



신복례(인문대 83,
미주 중앙일보 차장)

작년 말 개봉한 영화 ‘아바타’가 전 세계 극장가에 흥행 돌풍과 함께 ‘아바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 흥행수입 24억6천억 달러로 ‘타이타닉’이 세운 역대 최고 흥행기록을 썼고 인기 만점이나 많은 각종 논란을 일으

키기도 했다.

‘아바타’는 3D 입체영화에 새 장을 열었다는 영화사적인 평가 외에도 돈이 된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그 땅에 살아온 원주민과 제3세계 민중들을 거리낌없이 죽이고 약탈해온 탐욕스런 제국주의와 아직도 개발을 지상과제처럼 떠받들고 있는 인류의 자화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성찰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26세기 지구의 에너지원이 고갈되자 인류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 판도라로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 간다.

그곳에는 원주민인 나비족이 동식물과 교감하며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나무는 수십층 건물보다 더 높고 무공해 자연 속에서 자란 나비족들은 늘씬하고 날렵하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판도라의 숲은 천상의 낙원이 저절로 싶을 만큼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그곳에 ‘우주의 별종’ 사람이 도착했다. 지구별의 자원을 바닥낸 인류는 이제 우주의 또 다른 별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겠다고 집채만한 불도저와 로봇을 앞세운 채 숲을 밀어내고 원주민을 살육한다.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제일 처음 밭을 디딘 땅이 ‘아이티’라고 한다.

규모 7.0의 강진으로 20만명이 숨지고 200만명이 폐허가 된 거리에 나앉아 구호식품에 연명하고 있는 그곳이다.

아이티에는 원주민이 없다. 그 땅을 정복한 콜럼버스가 금을 적게 바친다는 이유로 원주민을 몰살했고 그후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아이티는 토착어로 ‘산이 많다’는 뜻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였고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1800년대에는

카리브해의 부국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1915년부터 1934년까지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그후로는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뒤발리에 부자의 30여년 독재정치로 국가 재정은 거덜나고 부패가 만연한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나마 몇 안되는 중소기업은 90년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미국이 가한 무역제한 조치에 파산했으며 쌀 생산은 세계화에 따른 관세 폐지로 미국쌀로 대체됐다.

또 국토의 60%가 넘던 우거진 열대림은 다국적 기업들의 무차별 벌목으로 이제 초기 숲의 3%만 남아 있는 민둥산 섬나라가 되고 말았다.

서구열강에 의해 철저하게 자생력이 파괴된 나라, 가벼운 태풍·홍수도 스스로 막아낼 힘이 없게 된 나라, 그 아이티가 홀리고 있는 피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지금 세계인들이 참사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각국 정부는 아이티의 재건을 논의

하고 있다.

영화 ‘아바타’에서 판도라의 나비족은 탐욕에 눈이 먼 지구인을 물리치고 숲을 지켜낸다.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인 제이크, 그가 아바타의 몸을 빌어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어머니 대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나비족 청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구인과 맞선 덕분이었다.

아바타는 사이버 공간에서 본진 캐릭터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아 뜻대로 사는 자’를 뜻한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아이티의 장단기 재건플랜을 논의하는 원조 공여국간의 회의가 개최됐다.

아이티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섬나라 아이티의 생존에 필수적인 숲을 되살려낼 수 있을까?

영화 ‘아바타’에서 보고 들었던 인류 희망의 노래를 역사의 산 현장에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서울대 합격자 생활수기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색 바랜 옷...내가 가진 것 중 헤치고 낚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사전 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길레질을 하는 허드렛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알아 숯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동어 등짝처럼 심심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통뒤통 걸어 다니며, 가을에 입던 흙장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 차마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좌판에 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

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 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파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 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계셨다. 나는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 드렸다.

“엄마,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동안 나를 꼬~옥 안아 주셨다.

그날 엄마는 단골손님들에게

함지박에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의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 주고 아이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사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 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복받치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셨다. 그저 색 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적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기뻐했을 텐데...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운 분이다. 그토록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었어. 계속된 사업 실패와 지저분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하나도 아닌 들쭉이나 몸이 성치 않은 자식을 둔 애비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봐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 그러다 중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끝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상위로 올라가다 중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 중간에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 몸이 아팠다. 그때 부리나케 달려오신 엄마

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흠뻑 젖은 교복을 털어 주시는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렀는데 여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절룩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가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봐,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봐 주머니 속의 동전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곤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굵이굵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어 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한 시간씩 큰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 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오늘도 나는 온종일 형을 도와 과일 상자를 나르고 밤이 돼서야 일을 마쳤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던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 글은 모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든 글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후 이 문은 모교 졸업후 미국에서 우주항공 박사과정에 있으며 어머니와 형을 모두 미국으로 모시고 와서 보살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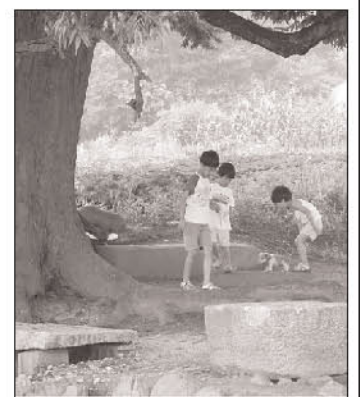
희향시(懷鄉詩)

내 고향에 가서 김태환(법대 46)

내 고향 마을 앞
느티나무 한 그루
오늘도 그 자리에
날 기다리나

햇볕에 그을린 얼굴
땀 식혀주고
여름날 소나기에
우산되어 주었지

넋가에서 물장구치며
웃고 떠돌던 어린 시절
그 친구들 어디 갔나



아 아~ 그리워라 그리워

어젯밤 꿈 속에선
모두 다 여전더니
푸르른 느티나무엔
구름만이 쉬고 가네

동창회비·우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미주 동창회 10대 회장단(시카고) 본부의 영수 기록임

동창 회비 2009/2010 회계년도

Alaska 윤계중 (농대 55)	박동훈 () 박성민 (의대 58) 박영옥 (사대 55) 박우성 (상대 77) 박원준 (공대 53) 박의순 (상대 53) 박임하 (치대 56) 박제인 (약대 60) 박종성 (법대 53) 박종수 (수의대58) 박종식 (의대 48) 박진득 (농대 67) 박찬호 (자연대81) 박창선 (공대 55) 박취서 (약대 60) 박태호 (치대 66) 박형철 (사대 72) 방명진 (공대 73) 배효식 () 백성용 (사대 52) 백옥자 (음대 71) 부영무 (치대 70) 서승열 (공대 59) 서치원 (공대 69) 선우원근(공대66) 성락호 (치대 63) 손남수 (미대 60) 손장순 (공대 69) 손학식 (공대 61) 송은섭 (치대 69) 송준섭 (농대 65) 송원표(수의대73) 신광재 (공대 73) 신대식 (상대 66) 신동국(수의대74) 신희재 (사대 66) 나두섭 (의대 66) 남장우 (사대 56) 노명호 (공대 61) 노상규 (공대 60) 노제민 () 문병하 (법대 51) 문인일 (공대 51) 민병곤 () 민병완 (약대 68) 민영기 (치대 61) 박 현 (상대 68) 박경화(문리대46) 박국종 (법대 57)	양태준 (상대 56) 염동해 (농대 74) 오명주(간호대77) 오양숙(간호대60) 오찬수 (약대 57) 우옥자(간호대60) 원미랑 (미대 65) 유석홍 (상대 61) 유의영 (문리대56) 유재환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유창호 (약대 74) 유현순(간호대69) 윤석철 (상대 60) 윤용길 (공대 55) 윤장희 (상대 83) 윤흥기 (의대 58) 윤희성 (치대 65) 이 선 (의대 42) 이강원(인문대76) 이경수(수의대73) 이근설 (상대 56) 이근호 (공대 46) 이기재 (사대 52) 이기준 (법대 54) 이길자 (음대 57) 이난정 (음대 66) 이동설 (사대 36) 이명규 (미대 73) 이명희(간호대67) 이방기 (농대 59) 이병무 (치대 70) 이상문 (의대 52) 이 선 (의대 42) 이성웅 (음대 58) 이승훈 (상대 74) 이양구 (상대 57) 이영송 (치대 63) 이영식 (농대 58) 이영신(간호대77) 이우근 (음대 46) 이원택 (의대 65) 이의덕(신문대원 70) 이은희 (의대 48) 이제권 (법대 56) 이제룡 (공대 71) 이정열(간호대68) 이정옥(생활대71)	이종걸 (상대53) 이종묘(간호대69) 이준식 (의대 61) 이준호 (상대 65) 이중열 (공대 69) 이채진 (문리대) 이필권(보대원65) 이혜영 (공대 56) 이혜란 (미대) 이홍표 (의대 58) 이화숙(간호대67) 임동호 (약대 55) 임승배(문리대66) 임용오 (의대 57) 임정란 (음대 76) 임진한 (치대 68) 임춘수 (의대 57) 임화식 (치대 59) 임희영 (치대 69) 장 준 (인문대85) 장경구 (미대 67) 장기화 (치대 57) 장기창 (공대 56) 장동석(문리대66) 장제찬 (의대 61) 장진성 (약대 66) 전낙관 (사대 60) 전병련 (공대 54) 전성대 (사대 60) 전호선(수의대67) 전화자 (음대 60) 전희택 (의대 58) 정원훈(상대 38) 정 황 (공대 64) 정규남 (공대 52) 정동구 (공대 57) 정동식 (공대 57) 정두호 (공대 64) 정복근 (사대 69) 정수만 (의대 66) 정원훈(상대 38) 정인덕(보대원64) 정인환 (법대 54) 정재형 (약대 55) 정진수 (공대 56) 정창희 (법대 54) 정태무 (사대 44) 정현진(간호대68) 제영혜(생활대71)	조동준 (의대 57) 조성윤 (법대 46) 조상하 (치대 64) 조재길 (사대 61) 조종용 (공대 45) 조태목 (사대 60) 조태준(문리대59) 주수봉 (공대 67) 진희섭(문리대50) 차기민 (공대 85) 채희원 () 최경복(간호대69) 최경자 (약대 63) 최덕순(간호대59) 최복영 (사대 56) 최승륜 (상대 53) 최영순(간호대69) 최왕욱 (공대 69) 최용환 (공대 57) 최인용(문리대65) 최태근 (법대 48) 최홍수(자연대87) 탁혜숙 (음대 67) 하기환 (공대 66) 하상원(대학원90) 한종철 (치대 62) 한태호(인문대75) 허영진(문리대61) 현원영 (사대 45) 홍병의 (공대 68) 황동하 (의대 65) 황만익 (사대 59) 황석우 (의대 53) 황정식 (사대 54)	박창익 (농대 64) 안창현 (의대 55) 양찬기 (의대 57) 엄부광(문리대60) 오석일 (의대 64) 윤홍철 (의대 56) 이중오 (의대 58) 전웅상 (공대 46) 정구영 (의대 50) 한기빈 (공대 52) 한성수 (의대 54) 한용현 (의대 44) 황현상 (의대 55) Georgia 계광무 (공대 63) 김영서 (상대 54) 김용건(문리대48) 김종구(수의대73) 문종현 () 박천기 (법대 56) 안승덕 (상대 51) 오경호 (농대 60) 임수암 (공대 62) 임한웅 (공대 60) 정경근 (농대 59) 정인태 (의대 58)	김용주 (공대 73) 김윤범 (의대 54) 김일훈 (의대 51) 김재환 (사대 72) 김정주(문리대60) 김현주(문리대61) 노영일 (의대 62) 문병훈 (사대 47) 문탁영(문리대55) 박 숙 (의대 64) 박영규 (농대 57) 박인숙 (미대 69) 반용균 (의대 53) 배영철 (의대 54) 서상현 (의대 65) 소진문 (치대 58) 송재현 (의대 46) 신석균(문리대54) 안은식(문리대55) 양승표(문리대57) 양홍미 (약대 63) 오기창 (법대 50) 오명자(간호대60) 윤효정 (사대 87) 이광선 (의대 59) 이덕수(문리대58) 이동균 (공대 75) 이맹희 (상대 52) 이소희 (의대 61) 이승자 (사대 60) 이승훈 (공대 66) 이승훈 (공대 66) 이영우(문리대66) 이용락 (공대 48) 이윤보 (농대 57) 이정일 (농대 57) 이진주(문리대55) 이춘우 (치대 54) 임이철 (미대 54) 임원재 (의대 59) 장기남(문리대62) 장시경 (약대 58) 장윤일 (공대 60) 장은숙(문리대53) 전현일 (농대 62) 정 호 (공대 62) 정광훈 (공대 60) 정병욱 (의대 53) 정승규 (공대 60)	정영숙 (사대 59) 정지희(문리대59) 조 철 (공대 49) 조대현 (공대 57) 조중행 (의대 63) 조형원 (약대 50) 지혜자 (미대 65) 진관보 (의대 72) 진보린 (약대 56) 천양곡 (의대 63) 최길용(문리대57) 최순분(간호대57) 최순용(문리대61) 배영철 (의대 54) 최의필 (의대 53) 최혜숙 (의대 53) 최호승 (사대 58) 최희수(문리대67) 한의일 (공대 62) 한재은 (의대 59) 함성택(문리대55)
-----------------------	---	---	---	--	---	---	---

Indiana
김연화 (음대 68)
김정숙 (약대 51)
송순영(문리대52)
이종일 (의대 65)
임영신 (의대 54)

Iowa
서만길 (의대 61)

Kansas
임하진 (의대 79)

Louisiana
강영빈(문리대58)

Massachusetts
김병국 (공대 71)
김은한 (의대 60)
김제호 (상대 56)
도은희 (농대 61)
민길우(문리대61)
박기순(간호대70)
박종건 (의대 56)
윤상래(수의대62)
윤은상 (상대 66)
이금하(문리대69)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회보 구독료 포함)

n
2009. 7. 1.- 2010. 6. 30. ☐ \$75
2010. 7. 1.- 2011. 6. 30. ☐ \$75

관악 후원금

\$200	\$200+	\$500	\$1,000
☐	☐	☐	☐

종신 이사비	모교발전기금 [백만원기금]	지부 분담금
☐ \$3,000	☐	☐

성명:(한글)		작성일: 년 월 일	
(영문)			
단과대:	대학원:	학과:	입학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Card Holder Name: _____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Card: Visa ☐ Master Card ☐
Send to: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Card No.: _____ Security Code: _____ Exp. Date: _____
	Signature: _____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이희인 (공대 68)	장병호 (의대 66)	김은섭 (의대 53)	김석식 (의대 58)	임건식 (음대 54)	Oregon	김영옥(가정대74)	최규식 (상대 64)
이재용 (의대 93)	정성순 (음대 68)	김자익 (의대 69)	김석자 (음대 61)	임공세 (의대 61)	김상만 (음대 46)	김영창 ()	최동현(문리대50)
이희규 (공대 69)	조병권 (공대 64)	김중석 (문리대55)	김성건 (공대 56)	임대목 (의대 58)	김상순 (상대 67)	김의신 (의대 60)	최완열 (상대 56)
Maryland	차대양 (공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승호 (공대 71)	장기선 (약대 61)	김영자(간호대53)	김정훈 (공대 46)	최준호 (공대 60)
강경구 (사대 49)	채무원 (의대 59)	김훈일 (공대 60)	김영배 (공대 78)	장영식 (법대 59)	성성도 (사대 67)	김진만 (공대 57)	
강길종 (약대 69)	최공창 (의대 55)	박경원 (미대 66)	김용술 (상대 56)	장영자(간호대68)	최근녕 (법대 63)	김현정(간호대70)	Washington
공순옥(간호대66)	하계현 (공대 64)	박대규 (사대 55)	김용연(문리대63)	전병삼 (약대 54)	최동근(문리대50)	명인성 (공대 50)	구본영 (공대 65)
권철수 (의대 68)	Minnesota	박성일 (상대 58)	김우영 (법대 70)	정인식 (상대 58)	한영준 (사대 60)	박민자 (사대 58)	김영일 (공대 53)
김 철 (의대 62)	권학주 (치대 59)	박성호 (공대 57)	김은태 (의대 46)	정진선(간호대82)	Pennsylvania	박석규(간호대59)	김윤국(문리대49)
김병오 (의대 63)	김권식 (공대 61)	박은규 (약대 72)	김종원 (사대 58)	정택수(문리대46)	강영배 (농대 59)	박영규 (사대 66)	김인배(수의대59)
김중호 (약대 68)	김태환 (의대 58)	박익수 (사대 52)	김종울 (사대 51)	조남천 (사대 59)	고병은(문리대55)	유길선 (농대 73)	김재훈 (공대 72)
김창호 (법대 56)	김영남 (사대 53)	박태호 (상대 76)	김진승(문리대53)	조대영 (공대 61)	김국간 (치대 64)	유세만 (공대 59)	박 홍 (상대 68)
김희용 (의대 74)	남세현 (공대 67)	배병애(간호대47)	김창수 (약대 64)	조숙자(간호대59)	김영우 (공대 55)	이규진 (약대 60)	박종수 (공대 74)
남옥현(경영대84)	변우진(인문대81)	서정웅 (약대 63)	김학수 (상대 65)	조종수 (공대 64)	김용국 (의대 58)	이길영(문리대59)	박진수 (의대 56)
노광욱 (치대 39)	성욱진 (치대 87)	손광호 (의대 59)	김해암 (의대 58)	조대환 ()	김재술 (약대 58)	전중희 (공대 56)	변종혜 (법대 58)
도상철 (의대 63)	송창원(문리대53)	송기인 (의대 60)	김현중 (공대 63)	조황환 (치대 65)	김주진 (법대 54)	정철철 (의대 55)	송 준 (공대 55)
박명영 (의대 68)	왕규현 (의대 56)	신두식 (의대 52)	김형찬 (약대 54)	차국만 (상대 56)	남영선 (공대)	조시호(문리대59)	신창범 (법대 73)
박찬효 (약대 67)	주한수(수의대62)	오용호 (의대66)	노용면 (의대 49)	천병수 (공대 70)	민홍식(수의대60)	조진태(문리대57)	양용관(수의대62)
소숙영(간호대64)	Mississippi	유호근(문리대71)	라홍채 (공대 62)	최구진 (약대 54)	박영한 (약대 68)	진기주 (상대 60)	유성열 (공대 72)
송병준 (약대 68)	김진호 (의대 60)	윤갑식 (공대 53)	민발식 (의대 60)	최석진 (사대 54)	변국환 (공대 75)	최성호(문리대58)	이정희 (약대 82)
신구용 (공대 59)	N.Carolina	윤순철 (사대 44)	박수안 (의대 59)	최수용 (상대 55)	서준민 (공대 64)	최용천 (의대 53)	이대원 (사대 58)
신상균 (의대 52)	이석형 (사대 56)	윤준식 (법대 58)	박순영 (법대 56)	최영혜(간호대64)	송재욱(가정대77)	탁순덕 (사대 57)	이순모 (공대 63)
안창호 (약대 70)	이능석 (의대 57)	윤현남 ()	박정식 (사대 59)	최일단 (미대 55)	송영두 (의대 56)	황의찬 (사대 76)	이종성 (의대 58)
오인환(문리대63)	전길표 (음대 64)	이경림 (상대 64)	박현성 (약대 60)	최태식 (의대 69)	신선자 (사대 60)	Utah	이창렬 ()
오혜현 (약대 55)	조동림 (의대 52)	이문희(문리대54)	배상규 (약대 61)	최환용 (농대 58)	심완섭 (의대 67)	김인기(문리대58)	홍계인 (음대 60)
이유세 (사대 72)	최종진 (의대 63)	이유찬 (의대 58)	서정애 (음대 67)	최형무 (법대 69)	양운택 (의대 58)	김성완(문리대59)	황계규 (공대 54)
이재승 (의대 55)	한광수 (의대 57)	이제원 (법대 60)	서상철 (의대 49)	한승신 (의대 70)	오진석 (치대 56)	배유한 (공대 73)	Wisconsin
이준영 (치대 74)	홍 훈(문리대 75)	이종식 (상대 57)	성기로 (약대 57)	한영수 (의대 61)	윤정나 (음대 57)	Virginia	김영화(문리대65)
이대영 (법대 60)	Nebraska	정순기(문리대69)	송영순 (사대 60)	한용진 (미대 55)	이규조 (공대 56)	고무환 (법대 57)	이영균 (의대 61)
이항열 (법대 57)	김병자(문리대62)	정준영(문리대67)	신남철 ()	한호 ()	이만택 (의대 52)	곽근영 (사대 51)	이기억(문리대46)
임종식 (의대 51)	오태요 (의대 56)	조경현(수의대58)	안재현 (상대 62)	허병렬 (사대 42)	이봉재 (공대 95)	김기봉 (공대 63)	장홍(문리대61)
임필순 (의대 54)	이상문 (상대 57)	주선후 (음대 54)	양거영 (의대 49)	홍선경 (의대 58)	이성숙(생활대74)	김세량 (공대 62)	장세곤 (의대 57)
전정철 (공대 55)	New Jersey	최영태(문리대67)	양금자 (미대 69)	황문하(수의대76)	이수경 ()	김재동(문리대70)	전창호 (공대 55)
정요셉 (사대 70)	강석권 (법대 61)	최원로 (의대 42)	양세환(경대원66)	Ohio	이영재 (상대 58)	남광순 (음대 64)	West Virginia
조세진 (의대 65)	고영수 (미대 57)	최준희 (의대 58)	오인환 (의대 67)	김윤성 (의대 63)	이지춘 (미대)	문성길 (의대 63)	정약훈 (의대 47)
Maine	곽상준 (약대 55)	최희웅(문리대61)	유광현 (의대 58)	김한교(문리대47)	장성환 (의대 55)	박정훈 (상대 55)	김홍락(문리대52)
채도경 (의대 59)	곽선섭 (공대 61)	추계옥 (의대 57)	유제식 (공대 65)	김현왕 (공대 64)	전무식(수의대61)	박엽(사회과대 80)	
Michigan	권문용 (미대 61)	탁명양 (약대 50)	유정자(간호대63)	명인재(자연대75)	전방남 (상대 73)	박용걸 (약대 56)	
권순관 (공대 60)	권오근 (상대 58)	한인섭 (약대)	유진일 (의대 60)	서윤석 (의대 62)	전희곤 (의대 54)	박윤수(문리대48)	
김용호 (약대 69)	기도석 (공대 67)	허선행 (의대 58)	윤병하 (농대 80)	손기용 (의대 55)	정영자 (치대 63)	박일영(문리대59)	
김우신 (의대 60)	김경애(간호대55)	현건섭 (공대 55)	윤영섭 (의대 57)	송용덕 (의대 57)	정용남(문리대60)	박평일 (농대 69)	
김원정 (의대 69)	김규화 (상대 63)	홍사란(문리대61)	윤정옥 (약대 50)	송용재 (의대 63)	정홍택 (상대 61)	박형순 (의대 54)	
김정일 (의대 57)	김대연 (의대 59)	Nevada	이근수 (상대 64)	이범세 (의대 56)	제갈은(문리대59)	변판식 (사대 49)	
남상용 (공대 52)	김동건 (사대 67)	이관 (공대 55)	이대연 (약대 65)	이영웅 (의대 56)	조영일 (공대68)	서희열 (의대 55)	
박준환 (의대 55)	김병철 (공대 60)	최영식 (법대 59)	이대영(문리대64)	이용재 (공대 60)	조영호 (음대56)	신용계 (의대 62)	
오동환 (의대6 5)	김봉희 (공대 69)	New York	이성구 (약대 56)	이원호 (의대 53)	주기목(수의대68)	오원섭(수의대53)	
유효명 (의대 58)	김세환 (공대 65)	강영선 (공대 50)	이성수 (공대 56)	이익삼 (사대 58)	Rhode Island	유홍열(문리대74)	
육태식 (의대 61)	김양호 (의대 51)	계동희 (치대 67)	이영애 (치대 52)	정길화 (의대 59)	오세자(인문대71)	윤개원 (약대 60)	
이민우 (의대 61)	김연석 (상대 54)	곽승용 (의대 65)	이영애 (농대 59)	채혜숙(문리대70)	Tennessee	이내원 (사대 58)	
이상일 (의대 54)	김영애 (사대 56)	권영국 (상대 60)	이정은 (의대 58)	최인갑 (공대 57)	용준식 (의대 48)	이승희 (음대 55)	
이성길 (의대 65)	김영일 (약대 58)	권영대 (공대 69)	이주경 (상대 68)	홍준표 (의대 58)	정성장 (의대 43)	이연구 (미대 60)	
이종기 (농대 55)	김영진(문리대50)	김광호 (의대 66)	이준행 (공대 48)	Oklahoma	Texas	이영목 (공대 59)	
이한중 (의대 59)	김영철 (의대 55)	김동진 (약대 56)	이해청 (약대 62)	김경숙(생활대70)	박노환(문리대48)	이형모 (의대 45)	
장 철 (의대 65)	김옥현 (의대 59)	김명승 (상대 65)	이현효 (공대 58)	이상강 (의대 70)	박용길(문리대59)	정계훈(문리대55)	
		김문경 (약대 61)	이희자(간호대70)		김기준 (공대 61)	정원자 (농대 62)	

동창 회비 2010/2011 회계년도

Alaska	김익창 (의대 49)	이홍표 (의대 58)	윤홍철 (의대 56)	이승자 (사대 60)	Michigan	양문석 (상대 54)	유무영 (공대 66)
윤계중 (농대 55)	김정빈 (공대 66)	임진자 (미대 60)		이승훈 (공대 66)	권영조 (의대 55)	양성택 (상대)	이희경 (의대 55)
Alabama	김희창 (공대 64)	임진한 (치대 68)	Georgia	정 호 (공대 62)	남상용 (공대 52)	윤현남 ()	최영혜(간호대64)
유성무 (상대 66)	남장우 (사대 56)	임춘수 (의대 57)	김용건(문리대48)	정병욱 (의대 53)	이성길 (의대 65)	이유찬 (의대 58)	한승신 (의대 70)
Arizona	노명호 (공대 61)	임화식 (치대 59)	최우백 (공대 76)	조 철 (공대 49)	Minnesota	이재덕 (법대 60)	한용진 (미대 55)
지영환 (의대 59)	노재민 (문리대)	정원훈 (상대 38)	Hawaii	천양곡 (의대 63)	김권식 (공대 61)	이전구 (농대 60)	황문하(수의대76)
California	민영기 (치대 61)	정인환 (법대 54)	김승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배병철(문리대65)	한인섭 (약대)	Ohio
강희창 (공대 57)	박종성 (법대 53)	정세훈 (공대 64)	박장부 (의대 61)	최혜숙 (의대 53)	N.Carolina		고남규 (의대 61)
권영덕 (공대 54)	박종수(수의대58)	정 황 (공대 64)	Illinois	Indiana	이석형 (사대 56)	New York	김용현(경영대66)
권오형 (사대 61)	박형철 (사대 72)	제영혜(생활대71)	강화영(문리대48)	한원중(수의대83)		김병술 (약대 52)	김윤성 (의대 63)
김기태 (의대 52)	부영무 (치대 70)	조동준 (의대 57)	김사직 (상대 59)	Maryland	New Jersey	김세중 (공대 50)	송용덕 (의대 57)
김석홍 (법대 59)	서정하 (공대 55)	조대목 (사대 60)	김재환 (사대 72)	공순옥(간호대66)	고순정(간호대69)	김승호 (공대 71)	송용재 (의대 63)
김영석(문리대54)	서치원 (공대 69)	주수봉 (공대 67)	송원희 (미대 60)	박명영 (의대 68)	김한중 (의대 56)	김진승(문리대53)	
김용수(경영대74)	오명주(간호대77)	현원영 (사대 45)	신석균(문리대54)	안창호 (약대 70)	박건이 (공대 60)	노용면 (의대 49)	
김은희 ()	오찬수 (약대 57)	황만익 (사대 59)	안은식(문리대55)	유덕영 (공대 57)	박성일 (상대 58)	박고자 (음대 61)	
	윤희성 (치대 65)	Florida	이소희 (의대 61)	이재승 (의대 55)	박태호 (상대 76)	박수안 (의대 59)	
	이성웅 (음대 58)	오석일 (의대 64)				양금자 (미대 69)	
	이영일(문리대53)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관악 후원금

동창회비를 \$75 이상 내신 분은 추가금액을 관악 후원금으로 이전했습니다.

Arkansas
윤제중(농대 55) 1,000

Arizona
박양제(약대 48) 200
지영환(의대 59) 200

California
권대원(경대원59) 200
권영조(의대 57) 300
김경화(간호대69) 200
김낙구(상대 67) 25
김동산(법대 59) 200
김동석(음대 64) 200
김병연(공대 68) 200
김석두(농대 58) 200
김영석(문리대54) 200
김은중(상대 59) 1,000
김종표(법대 58) 200
김한평(치대 65) 200
나정지(간호대70) 200
박국중(법대 57) 200
박인하(치대 56) 25
염동해(농대 74) 1,000
원미량(미대 65) 200
유익영(문리대56) 1,000
유제환(상대 67) 200
유창호(약대 74) 200
이병무(치대 70) 200
이병준(상대 55) 1,000
이선 (의대 42) 2,000
이선희(사대 53) 25
이승훈(상대 74) 200

이영일(문리대53) 200
이화숙(간호대67) 300
임낙균(약대64) 300
임동호(약대 55) 200
임용오(의대 57) 3,000
임춘수(의대 57) 400
장준 (인문대85) 200
장진성(약대65) 200
전호선(수의대67) 225
전희택(의대 58) 200
정원훈(상대 38) 200
정창희(법대 54) 25
조계길(사대 61) 200
최용원(공대 57) 200
현원영(사대 45) 400
황만익(사대 59) 2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 52) 200
라찬국(의대 58) 200

Delaware
배성호(의대65) 200

Florida
전용상(공대46) 200
정구영(의대50) 200

Georgia
김용건(문리대48) 200
김용자(사대 60) 200
문종현() 20
주중광(약대 60) 500
허지영(문리대66) 500

Hawaii
김창원(공대 49) 200

Illinois
강창만(의대 58) 200
구경희(의대 59) 1,000
김길중(의대 59) 200
김영호(의대 71) 200
김윤범(의대 54) 200
김윤태(의대 63) 1,000

김제환(사대 72) 200
김정주(문리대60) 200
노영일(의대 62) 200
문병훈(사대 47) 100
박영규(농대 57) 200
반용균(의대 53) 200
서상현(의대 65) 125
송순영(문리대52) 300
송원희(미대 60) 200
양홍미(약대 63) 200
오기창(법대 50) 300
윤효정(사대 87) 25
이광선(의대 59) 200
이승자(사대 60) 200
이영우(문리대66) 200
이용락(공대 48) 1,000
이윤모(농대 57) 200
임현제(의대 59) 500
장기남(문리대62) 200
전현일(농대 62) 25
정병욱(의대 53) 800
정승규(공대 60) 200
조대현(공대 57) 200
조중행(의대 63) 1,000
진관보(의대 72) 200
최희수(문리대67) 200
한제은(의대 59) 500

Indiana
김연화(음대 68) 225
김태기(의대 62) 100

Kansas
배규영(사대 68) 200

Massachusetts
김제호(상대 56)200
이희규(공대 69)200

Maryland
강길중(약대 69) 200
권철수(의대 68) 200
김종호(약대 68) 200
김창호(법대 56) 25
오인환(문리대63) 200

기타 후원회비 및 기금 납부 동문

이태영(법대 60) 200
이항일(법대 57) 25
전정철(공대 55) 200

Michigan
오동환(의대 65) 200
차대양(공대 55) 200

Minnesota
김태환(의대 58) 200
왕규현(의대 56) 200

New Jersey
권문용(미대 61) 200
기도식(공대 67) 200
김봉희(공대 69) 200
김연석(상대 54) 200
김영일(약대 58) 25
김자역(의대 69) 25
박정원(미대 66) 200
박승원(공대 50) 500
신정윤(공대 60) 200
윤갑석(공대 53) 200
윤현남() 200
이경림(상대 64) 200
이문휘(문리대54) 150
이전구(농대 60) 1,000
이태형(문리대62) 200
이훈영(상대 61) 200
정준영(문리대67) 100
조정현(수의대58) 200
최희웅(문리대61) 200
한인섭(약대) 75
허선행(의대 58) 200
홍사만(문리대61) 25

Nevada
김용재(의대 60) 200

New York
강충무(사대 60) 200
권영국(상대 60) 200
권영대(공대 69) 200

김명승(상대 65) 200
김병숙(보대원64) 200
김병술(약대 52) 75
김승호(공대 71) 200
김영배(공대 78) 200
김용연(문리대63) 200
김용학(법대 70) 305
김정순(법대 53) 200
김중을(사대 51) 200
김창수(약대 64) 200
박준희(인문대86) 200
성기호(약대 57) 200
이근수(상대 64) 25
이준행(공대 48) 3,000
최구진(약대 54) 200
최수용(상대 55) 200
최한용(농대 58) 200
최형무(법대 69) 200

North Carolina
이석영(사대 56) 60

Ohio
김윤성(의대 63) 200
최인갑(공대 57) 200

Oklahoma
김경숙(생활대70) 200
이상강(의대 70) 200

Oregon
김상순(상대 67) 300

Pennsylvania
김국간(치대 64) 200
김주진(법대 54) 200
서중빈(공대 64) 200
손재욱(가정대77) 200
염극용(의대 54) 100
이지춘(미대) 200
정정수(의대 56) 200
현재원(공대 60) 200

Texas
김정훈(공대 46) 200

김태훈(공대 57) 125
맹인성(공대 50) 200
이희덕(농대 68) 200
조시호(문리대59) 200
황의찬(사대 76) 200

Utah
김성완(문리대59) 425

Virginia
김기봉(공대 63) 200
박용길(약대 56) 450
박윤수(문리대48) 200
박평일(농대 69) 25
이규철(상대 68) 200
이내원(사대 58) 200
이연구(미대 60) 25
이영목(공대 59) 500
정원자(농대 62) 200

Washington
김성열(치대 61) 200

Wisconsin
김영화(문리대65) 200
이영균(의대 61) 200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 200
권중건(치대 65) 120
김경무(공대 69) 120
김광철(음대 59) 120
김원철(농대) 200
김원탁(공대 65) 200
김재영(농대 62) 120
김종표(법대 58) 300
박준창(인문대79) 120
서동영(사대 60) 120
손학식(공대 61) 120
신대식(상대 60) 120
신혜원(사대 81) 120

원영배(미대 74) 120
윤홍원(환경대학원 85) 120
이경희(문리대57) 200
이근설(상대 56) 200
이명일(약대 72) 120
이준배(사대 60) 120
이형교(교대원66)120
임봉기() 200
장준 (인문대85) 120
정복근(사대 69) 120
정지선(상대 58) 300
조홍준(상대 65) 120
최준호(치대 58) 120

Illinois
김영호(의대 71) 120
김재환(사대 72) 2,500
심상구(상대 63) 120
이재희(상대 63) 120
이준우(치대 54) 120

Maryland
이준영(치대 74) 120

New Jersey
김세환(공대 65) 120
김영희(법대 80) 120
오영식(법대 72) 120
이경림(상대 64) 120
최영태(문리대67)120
강충무(사대 60) 120
김광호(문리대62)300
김명승(상대 65) 120
김영배(공대 78) 120
김용배(인문대77)120
김용학(법대 70) 120
김창수(약대 64) 120
윤병하(농대 80) 200
이근수(상대 64) 120
조대영(공대 61) 120
최형무(법대 69) 120
한영수(의대 61) 120

Oregon
김상순(상대 67) 120

Pennsylvania
김국간(치대 64) 120
손재욱(생활대77) 200

허창기(약대 67) 200

Texas
이윤성(수의대81)200
조시호(문리대59)300

Virginia
박상근(법대 75) 150
이규섭(상대 68) 200

Washington
김성열(치대 61) 200
유성열(공대 72) 200

모교발전기금

Washington
고광선(공대 57) 500

종신이사회비

California
조용원(문리대 66) 1,500

특별후원금

Korea
서울대학총장실 10,000
임광수 동창회장 3,000

Illinois
Chicago Golden Club 1,000

아시아나항공 2,000

평의원회비

California
이장우(문리대72) 100

Texas
이석호(78) 100



제19차 평의원 시카고 회의에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 June 11~13, 2010
장소 :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10 Marriott Dr. Lincolnshire
IL 60069 Tel (847)634-0100

6월11일 3:00~5:00 pm. Check in 등록및 접수
6:00~10:00 pm. 초빙강사 강연및 토론회

6월12일 9:00~5:00pm. 19차 평의원 회의
6:30~7:30 pm. Reception, Cocktail
8:00~10:00. 평의원, 총장, 동창회장 환영 디너

6월13일 8:00am~12:00 Check out
11:00am~5:00pm. 19차 평의원 회의 환영 골프대회
6:00pm~10:00pm 골프대회 시상식및 디너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링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임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엄동혜(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Hwang CPA

김 & 황 (t mrvuwmw wq| yw)
wvwy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감정목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 Corp
김 & 유 (t mrvuwmw {q} y) y
wvzt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 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Ace Business Services, Inc.
조만연(상대 58) (818) 994-7365
14617 Victory Blvd., #2 Van Nuys CA 91411

한인캐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8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리테일러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 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리테일러/리퀴스토아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 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리테일러/식품점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8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ett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설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 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t zq{ ywqz} t y
yyy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무역/전자제품
김원탁 (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562) 924-1411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황운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서비스/협색가공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Jade Textile, Inc.
임예진(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삼(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Valley Lyons Pet Hospital
권태삼 (수의대 73) zzuqvyyxqzz|t
24882 Apple St. Santa Clara, CA 91321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74)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송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 / 하드웨어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종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8

예술 / 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220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헬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A.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8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의료/내과/전문의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의료/이비인후과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10) 370-5500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의료/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의료/방사선과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재생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유주개발사
정재춘(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제조업/건강과 자연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교회/사찰

뉴 살렘 한가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람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종교/교회 지휘자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한방의원/한약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현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의대 78) (858) 525-3222
4228 Conr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이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전에 설립하여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취율과 많은 초혼자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 자녀 특별 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nue, Sui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이사/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8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의/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진(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한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D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현(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의사/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양공

Driveteck, Inc.
* 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Website: www.hanstravel.com

해보라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외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939-2811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이중국 종합의료원
이중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n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테일러/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8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학원/온라인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영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강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rni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재정설계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외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형(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약원/문화약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8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의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외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직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8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8-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종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무역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종합상사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8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8 Palisades Park NJ 07650

신용남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동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신용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lne Ave., #9 Fort Lee NJ 07024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명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l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웅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l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당/재정설계

송기희 기술상당
송기희(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238-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환(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llton NJ 08003

서비스/장금장식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동물병원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인문/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의료/내과/전문외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9차평의원회

장소: Marriott Resort
Lincolnshire, IL
Tel: (847) 634-0100
날짜: 6월 11~13일, 2010

Dai M. Lim, M.D.P.C.
임대욱(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718) 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육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의료/외과

Stan S. Choi, M.D.
최승웅(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계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NJ 07074

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생활일게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내과/전문외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Lancaster OH 43130

191호 2010년 3월

OK

하트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503) 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보험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리테일/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 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의사/동물병원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 (610)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록(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명남(의대 61) ◦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동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 (215) 887- 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휴스턴

수의사/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 (281) 531-9095
1368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민성(공대 50) ◦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 사

한국 장 의 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업소특 변경에 따른 신청 및 정정 요구 절차

업소특 지면 할애와 광고료 및 디자인 문의는 광고부
(전화 224-548-2148)에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UT

유티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263-8866
29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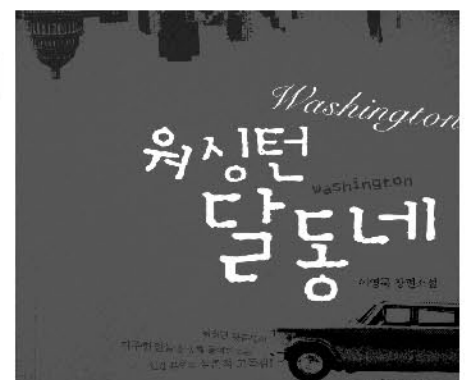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Tel: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워스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워싱턴 달동네’ 판매 안내

"재미"있고 "박진감" 그러면서 "문학성"을 지
닌 소설로, 그래서 한국에서 호평 속에 팔리
고 있는이영목 동문 (공대 59학번)의 장편소
설

단가 : \$ 15.00 (우송료 포함)
구입신청: e-mail : YL22180@YAHOO.COM
FAX : 703-931-8884

지불처: 1363 NORTHWYCK CT.
McLEAN, VA 22102
PAYABLE TO : YUNG LEE

샤프 여행사 전면광고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

VISION2025 모금 캠페인, 세계 최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배님, 우리 후배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다져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비전2025 모금 캠페인은,
세계 정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모교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2025 캠페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벌써 80% 가까운 모금을 달성했습니다.
멋진 마무리는 동문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이
바로 서울대의 경쟁력입니다.

• 동문 집중 참여 기간 : 2009년 8월~2010년 7월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VISION2025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Global Excellence	세계 초일류 인재 육성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학문 육성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Social Impact	사회 기여의 확대 사회 정책 기능 강화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 Foundation for Transformation	대학 혁신 지원 학문 인프라 강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재원은 서울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용됩니다.

발전기금 참여 계좌: Woori Bank Seoul National Univ. Br.
Address: San 4-2, Naksungdae-dong, Gwanak-gu,
Seoul 151-919, Korea
Account No.: 1081-000-418404
Swift Code: HVBKCRSE
문의: 82-2-880-5026, 871-8146
gift@snu.or.kr
<http://www.snu.or.kr>

